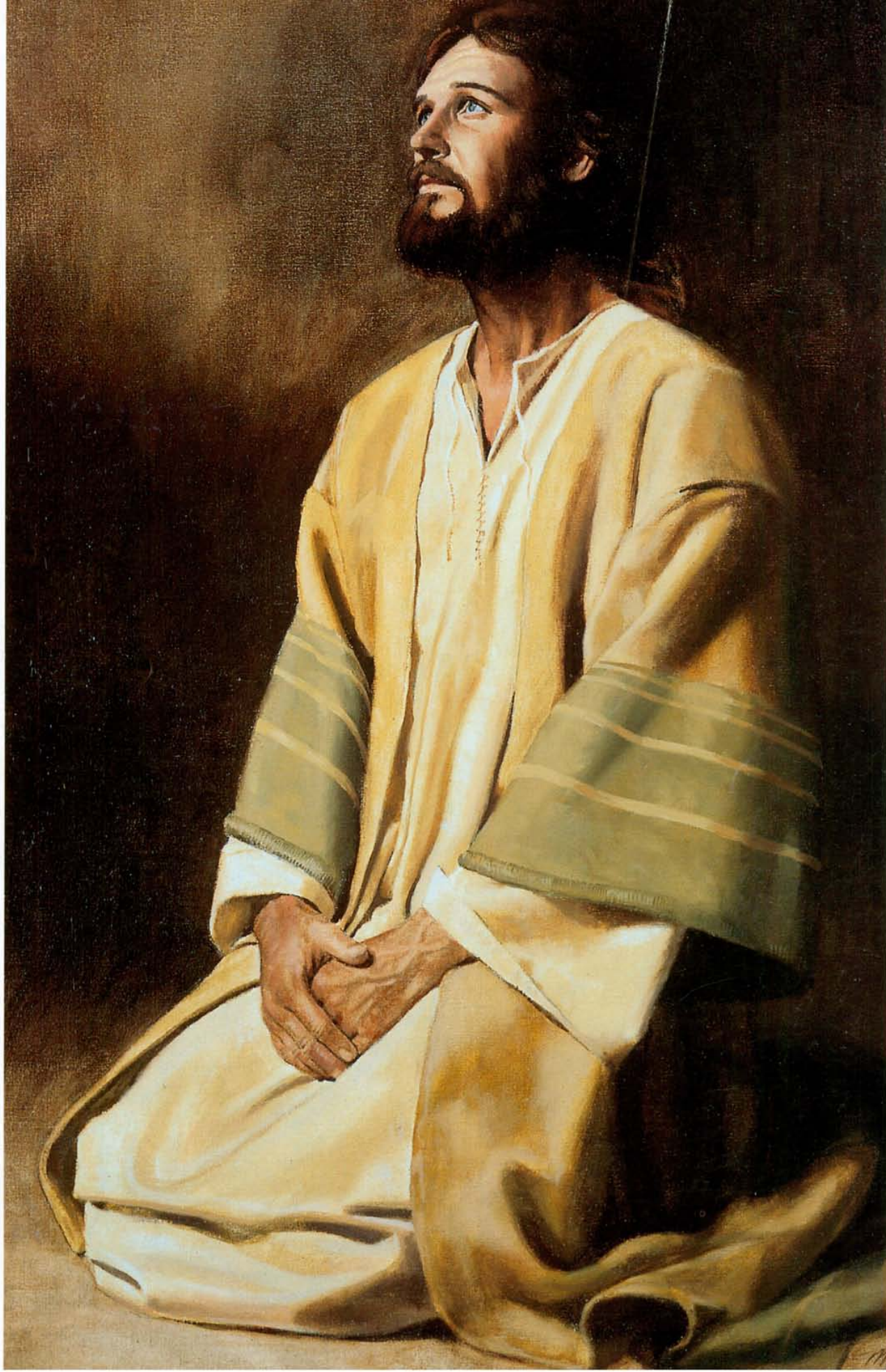


리아호나

말씀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채부록: 친구들 · 1999년 2월 호



친구들



표지

앞쪽 그림: 마이클 제이 넬슨, 무릎 꿇고 기도와 명상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뒷쪽 그림: (위로부터)해리 앤더슨,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 소경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덴마크 프레드릭스 보흐 성의 예배당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음, 프레드릭스보흐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그림:칼 하인리히 블로흐, 베데스다 연못, 덴마크, 코펜하겐, 베데스다 덴스크 인드루 선교부.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제드 클라크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읽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7 햇님반 사랑 사문 몽고메리 메이아스
- 8 "개종자는 모두 소중합니다."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 14 내 친구 래리 돈 왓슨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사
- 26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지니 머컬리스터
- 32 떡과 물고기 그리고 축은히 여기는 마음 캐런 로우즈 마를리
- 34 그분의 모범적인 생애를 통해 인도됨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44 경전을 통해서 오는 평화 파멜라 아키니 오버로

청소년란

- 18 목적이 있는 즐거움 재닛 토마스
- 23 물문 메시지: 모든 사람을 위한 방을 만들
- 24 인기 앤 빌링즈
- 46 초등학교 목적 브라이언 루이스
- 48 인식일을 거룩히 지킴

친구들(별책 부록)

- 2 친구가 친구에게: 러셀 엠 넬슨 장로
- 4 이야기: 나의 영웅 린다킵 힉릭슨
- 7 마음에 품었던 의도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8 "...는 경전 어디에" 앤 우드버리 무어
- 10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생애 최고의 날 맥케이 메이어
남동생을 위한 선물 다이애나 리니 로페스 루아노
"아니, 괜찮아" 제레미 드릭스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리나 마셀 로페스 루아노
- 12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 14 신앙의 도약 린다 브오크

8쪽 참조



26쪽 참조



34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판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 제이 이 찰슨, 존 엠 패드슨

교파 파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모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제작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보: 레이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크트 벤 켈렌

디자이너: 세리 쿡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데니스 커비, 래드 알 피터슨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95호, 제 36권, 제 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9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세부어, 체코어, 피지어, 길버트어, 핑기리어, 아이슬란드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우크라이니아어, 베트남어

©199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February 1999 vol.36 No.2. LIAHONA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인도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서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든 비 힝클리 대판장님의 매우 유익한 말씀들도 좋아합니다. 저는 또한 새로운 교제인 교회대판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을 읽고 있습니다. 영 대판장님의 가르침은 "일곱 우뢰의 혀"와 같았습니다.(성도의 빛, 1998년 4월호, 26~31쪽 참조) 그것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충실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고 예언자들께서 저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나 마리아 마르티네스 플런
버지니아 마운트 베논 스테이크
올드 타운(스페인인) 지부

생수를 찾아서

저는 필리핀 출신이지만 지금은 남편과 함께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전 평생 동안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찾았습
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읽었을 때, 저 또한 생수를 찾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요한복음 4:4~42절 참조)

저는 결국 진리를 찾았으며 1995년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언자들이 권고한 것처럼 제가 진실하고 충실하게 남길 기도합니다.

엘레나 알 몰러
독일 도르트문트 스테이크
에센 와드

구독하도록 권유 받음

저는 선교사로부터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를 구독하도록 권유 받았을 때 침례 받은 지 약 1년이 된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리아호나와 같은 잡지를 난생 처음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 리아호나를 읽었을 때, 거기에 실린 글들이 사실이란 간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잡지를 읽으면서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퍼슨 카를로스 노구에이라 다 실바
브라질 모소르 지방부
아라카티 지부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한 계획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리아호나에서는 독자들이 성탄절에 구세주를 어떻게 기념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사와 사진(가능하면)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Christmas Celebration Ideas,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기사를 1999년 3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기사에 언급된 이름들과 여러분의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스테이크나 지방부, 와드(지부)명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앎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는 쌍방간의 대화로서, 우리 모두가 마주치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한 정화수처럼 넘쳐 흐르는 영을 불러오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의 구속주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니 제 영혼이 겸손해짐을 느끼며 머뭇거리 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남미에서 잘 훈련된 훌륭한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명이 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매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인 우리 주님의 거룩한 관계를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어떤 것도 우리 생활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위대한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우리는 주님에 대해 알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권유한 바처럼 하나가 되어 그

분 안에 거하며(요한복음 17:21 참조)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에베소서 3:16) 하시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분이 먼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 분이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거룩함으로 이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런 영향력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에 대해 느끼는 것들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논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이따금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확신, 즉 우리가 참되다고 아는 주님에 대한 조용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식의 형태로 오는 이러한 진리의 확신을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려는 신성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다른 세상과 구별짓는 얇은 장막을 통해 흘러 나오는 진리에 대한 개인적 간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슴속 깊이 있는 느낌, 너무 개인적인 것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을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열망이 없습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주님께서서는 이 고요함의 실재를 일컬어 "이 일에 관하여 네게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교리와 성약 6:23)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은 샴의 원천으로부터 매일의 "생수"를 얻기 위한 방향을 명시해 주는 다섯 가지 요소들입니다.(요한복음 4:7~15 참조)

첫째, 매일 기도를 포함한 영적인 교통을 한다.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는 쌍방간의 대화로서, 우리 모두가 마주치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한 정화수처럼 넘쳐흐르는 영을 불러오게 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기도의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충만한 지식과 이해, 사랑과 자비, 권세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둘째, 매일 비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 거룩하신 그

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 평가의 척도는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어떤 현명한 사람은 "혼자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스스로에 의해 타락되기 쉽다."(찰스 헨리 파커스트, *사교의 세계사* 전에서 인용)고 보았습니다.

셋째, 매일의 생활에서 더 큰 순종과 완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라고 구세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로 인해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76:69 참조)

넷째, 매일 그분의 신성을 인식한다. 매일 주님과 개인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요?"(모사이야서 5:13)

다섯째, 매일 경전을 공부한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할 때, 그리고 듣는 신성한 귀가 없고 말하는 신성한 음성이 없는 것같이 여겨질 때, 저는 자신이 멀리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전을 상고하면 거리가 좁혀지고 영성이 돌아옵니다.(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김볼 판 1982년 135쪽)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 나사렛 예수에 대한 목격자의 말을 들어 봅시다. 고대의 사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았고 참여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베드로후서 1:16) 요한도 사마리아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니라"(요한복음 4:42) 현대의 증인들인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



그림: 칼 하인리히 볼로흐,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게 두리의 일부, 덴마크 프레드릭스보호 성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음, 프레드릭스보호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리와 성약 76:23)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베드로후서 1:4)가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메시아의 영향력과 가르침은 우리의 생활에서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왕국을 위해 끊임없이 위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누가복음 17:21 참조)

교리와 성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신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1~2 참조)

우리가 성결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교리와 성약 88:68) 날이 이를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88:67)

인생의 많은 시련 속에서 슬픔, 죄, 실망, 실패, 나약함 등으로 좌

절할 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의 치유력으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용서하고 잊으시는 사랑이며, 들어 올려 주고 축복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높은 수준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받쳐 주시며 그리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교리와 성약 93:13)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저는 제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곳에 겸손한 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종종 저는 자신의 인생보다 더 절실한 하나님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영혼의 고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탄으로 인해 그 고뇌가 너무나 강렬하여 마음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심한 고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따뜻하게 감싸 주는 주님의 영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한 저는 자신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의 무게와 자신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다는 자신감의 상실과 덧없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으나 그런 뒤에는 백 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대화하고 지시 받기 위해 수십 번도 더 영적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제가 힘든 싸움으로 부단히 애쓰고 있을 때 저는 마치 실제 변형의 산에 있는 듯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면전의 강한 힘과 권세를 느



그림: 칼 하인리히 볼로흐, 신상 수훈의 일부, 덴마크 프레드릭스보흐 성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음, 덴마크 프레드릭스보흐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사진 촬영: 제드 클라크, 크레이그 다이먼드, 매트 라이어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할 때, 그리고 듣는 신성한 귀가 없고 말하는 신성한 음성 이 없는 것같이 여겨질 때, ...경전을 삼고하면 ...영성이 돌아옵니다.”

끼기도 했습니다. 어떤 특별하고도 성스러운 느낌이 함께 하면서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게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찰 앞날을 위해 영적으로 건널 강한 힘이 있는가를 확인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로부터 오는 위안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조용한 확신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이들과, 평안할지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교리와 성약 121:7~8)

저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거룩하신 구세주이시라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일찍부터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습니

다. 살아오는 동안에 저는 저의 소박한 신앙을 한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너무나 신성한 것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과 온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구속주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네 구세주인 내게로 나아오라” (교리와 성약 19:41)는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일입니다.
2. 이러한 관계는 다음을 행함으로써 발전되고 강화됩니다:
 - 매일 기도를 포함한 영적인 교통을 한다.
 - 매일 비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
 - 매일의 생활에서 더 큰 순종과 완전을 위해 노력한다.
 - 매일 그분의 신성을 인식한다.
 - 매일 경전을 공부한다.

내 책상 위에는 감청색 오재미가 놓여 있는데 양쪽에는 노란 태양이 붙어 있다. 내가 “햇님반 사랑”이라 이름지은 개인적인 기적을 상기하고자 오재미를 그곳에 둔 것이다.

내가 교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 초등학교 교사로 부름 받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힘겨운 경험들이 새롭게 영적인 헌신을 하도록 이끌었고, 나는 기꺼이 봉사하고자 했다.

햇님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첫날, 난 얼마나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의 머리를 보려면 머리를 깊숙이 숙여 봐야 한다는 것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내가 염려스러운 듯 쳐다보았다.

공과 소개 활동으로 나는 내가 만든 커다란 오재미로 게임을 하기로 계획했다. 오재미를 던지는 순간, 나는 내가 아이들의 몸집을 너무 크게 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여자 아이가 오재미를 용감하게 받다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넘어졌다.

그날 저녁 집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했다. 어떻게 하면 그 작고 부드러운 아이들과 마음을 통할 수 있을까? 문득 나는 벽에 걸린 그림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었다. 조그만 아이를 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였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분께서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셨을까!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당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고 싶어하실까! 나는 구세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간단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마치 기적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같이 어려운 일이었다. 6년 간 양아이를 키우다 결국 이혼으로 끝난 후 내 마음은 무뎠다. 더구나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마음속의 갈등을 이겨내려 힘썼다. 오랜 시간 기도한 끝에 영은 내가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

었다.

그 주일부터 개인적인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주 초등학교 시간마다 나는 성신에 의해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갔다. 그해에 나는 그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성찬식 중에 예배실에서 반갑게 흔드는 손길을 보았고, 식품점에서 반갑다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기도 했고, 괴상한 모양의 과자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한 해가 저물어 햇님반 아이들이 졸업함에 따라 마음이 초조했다. 내 어린 친구들을 잃는다는 생각에 몹시 슬퍼졌다. 새로운 여덟 명의 낯선 어린이들에 둘러싸여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멍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에 공과 소개 활동인 오재미 게임을 시작했다. 낯고 지나치게 큰 오재미를 들어올리며,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다. 이 친근한 오재미를 보며 떠오른 추억들이 내 마음에 희망을 불어 넣었다. 밝게 반짝이는 어린 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랑해 주세요”라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

햇님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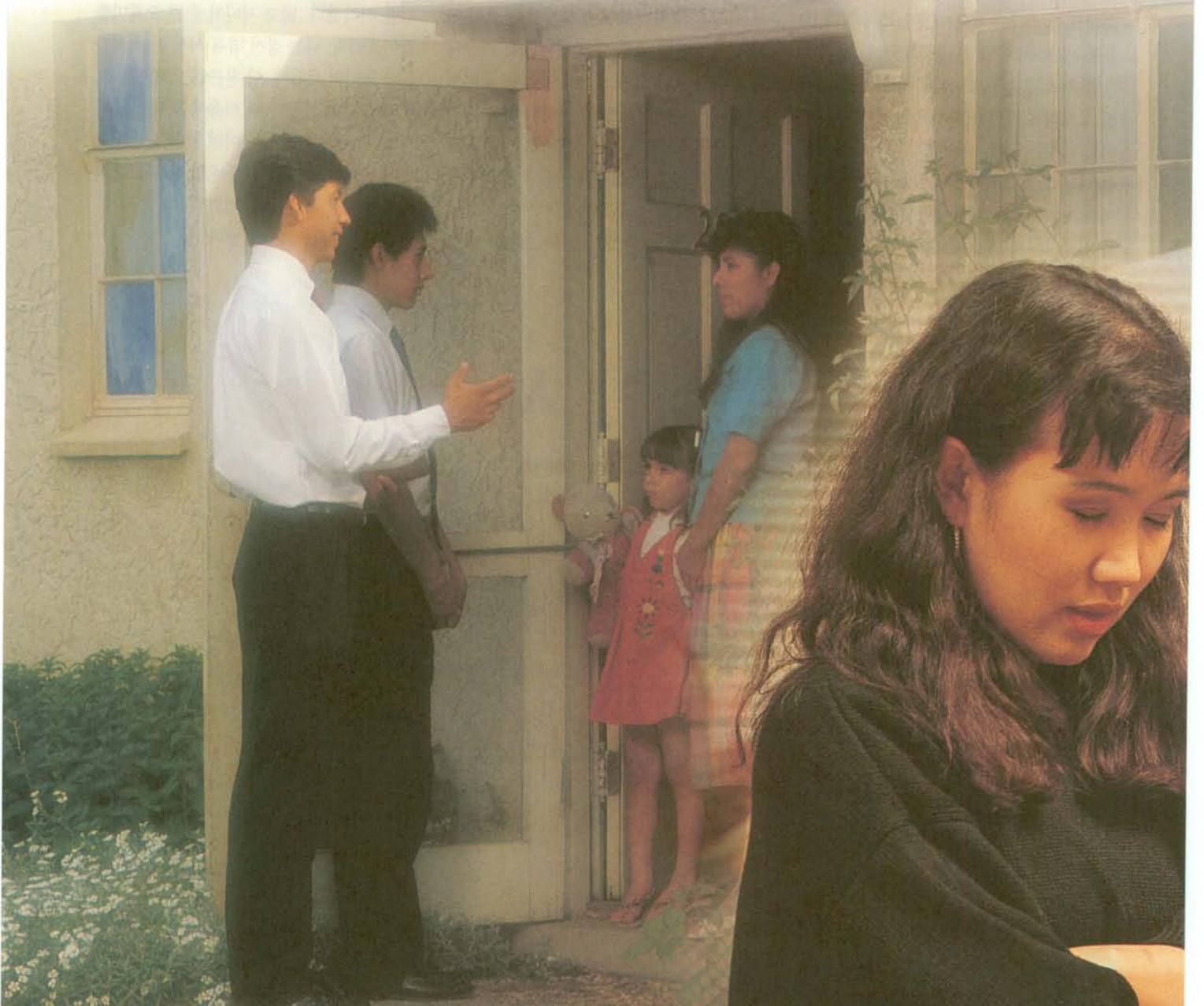
샤론 몽고메리 메이어스

그림: 베트 워티커



“개종자는 모두 소중합니다”

모든 개종자에게는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모로나이사 6:4)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의 말씀

사진 촬영: 웨스턴 앤더슨, 마이클 섀펠트,
마이클 밴 돈, 플로이드 홀드만

이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오랜 친구와 단체들을 떠나 색다르고 어떤 의미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은 새로운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개종자들이 길을 찾도록 그들을 돕는 실질적인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합니다. 개종자 한 사람에게 세 가지, 곧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모로나이서 6:4)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47쪽)

“교회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개종자의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길 바랍니다.”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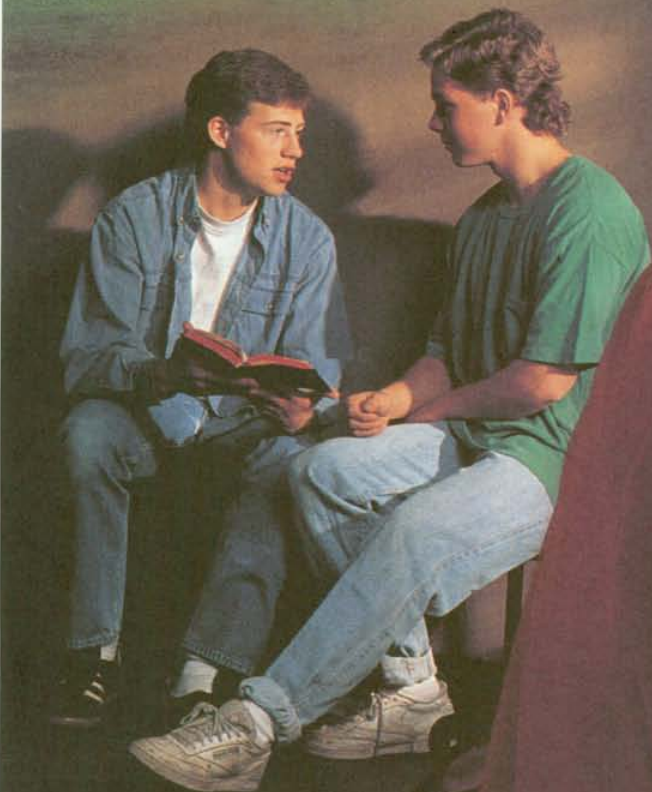
현재 개종자의 수가 그 어느때보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구

"이 위대한 노력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형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부탁드리고 간청합니다. 개종자 모두는 소중합니다. 개종자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개종자 모두를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47쪽)

"[개종자들은] 자신이 찾은 것 때문에 열정을 갖고 교회

에 옵니다. 우리는 즉시 그들의 열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와드에는 모든 개종자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개종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도해 주고 질문에 대답해 주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모든 회원들에게 교회에 오는 개종자들에게 우정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권유합니다."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50쪽)



책임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개종자들은 즉시 책임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비록 그러한 책임이 참으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책임이 그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종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즉시 그들에게 보다 많은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잘 몰라.’ 한번 기회를 주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걸고 계신 기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뭔가 할 일을 주십시오.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책임을 주어 그로 인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한 결코 그들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BYU 학생 부부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프로보, 유타, 1996년 2월 10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함

“모로나이는 침례 받은 후의 개종자들에 관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이 침례를 받은 뒤에는 성신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키며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저들의 신앙을 이루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나니’ (모로나이사 6:4)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개종자들은 ‘교회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키며 깨어서 항상 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그들을 도와주도록 합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가정 방문 교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감독단과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와 청남 청년, 심지어는 초등학교를 위한 사업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에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열 대여섯 살로 보이는 한 소년이 회중 앞에 서서 침례 받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교사 정원회 소년들이 한 명씩 마이크 앞으로 나와 저마다 그에 대한 사랑을 표하고는,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정원회 소년들이 그와 함께 하고 그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청남들이 친구에게 감사와 격려가 담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침례 받은 소년을 포함하여 그 소년들 모두가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47쪽)



잃어버린 사람 찾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교회의 사업을 관장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겪은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은 이 복음이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줍니다. 또 그들이 전에는 느껴 보지 못한 관점을 줍니다. 사물에 대한 시각을 고결하고 거룩하게 해줍니다.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얻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사업을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친절함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께서는 아흔 아홉을 두고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는 사실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하나가 밖에서 어느 어두운 그늘 아래 있다면, 그것이 아흔 아홉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를 찾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3-7 참조)” (“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빛, 1997년 7월 호, 47쪽) □



내 친구 래리

나는 한 친구를 만났고,
그는 복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돈 왓슨

그림: 윌슨 웡

나는 아내 진과 함께 1986년 10월의 어느 아침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날 오후 보험 문제로 한 남자를 방문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나는 그 임무가 우리의 기도와 어떠한 연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다. 나는 그렇게 래리를 만났다.

래리를 방문하여 이야기하던 중에 바로 그날 그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래리는 최근에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운전 면허를 취소 당했다. 이 부끄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실 침상의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곧바로 형성되었다. 나는 래리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그는 현재 여든 두 살이며 교회 회원이지만, 지난 60년 간 아무런 교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지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3년 전에 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는 우리 와드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가 교회 회원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와드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주저 없이 그에게 우리 부부와 함께 다음주에 교회에 나가겠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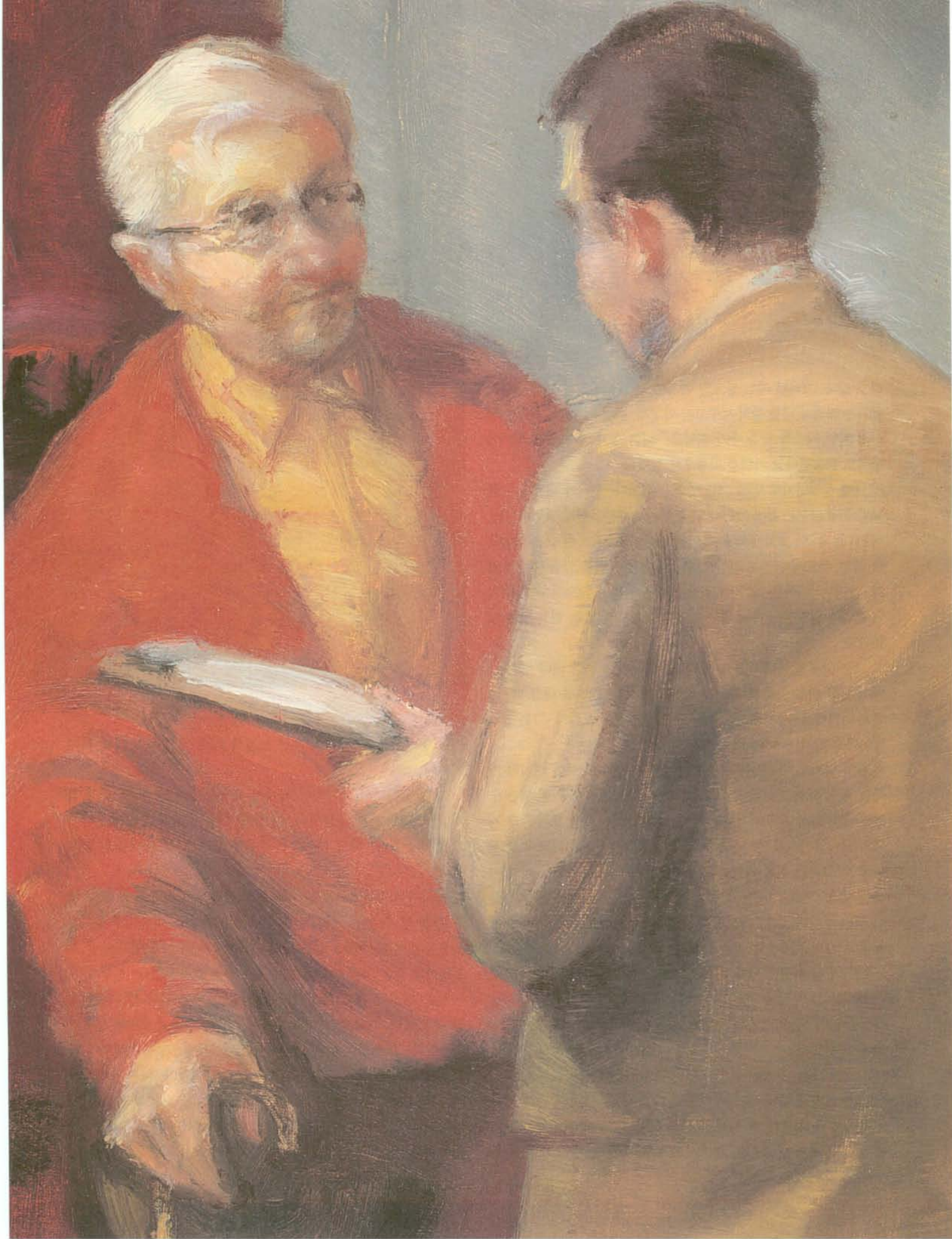
게 운전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차량이 필요할 때 운전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주 일요일에 그를 태우러 갔을 때, 진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금방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래리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는데 다리를 저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내가 래리를 신권회 시간에 소개하자 그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그가 그 곳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자 그는 깜짝 놀랐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임과 사람들이 좋았다고 그가 말했다. 그는 이어서 다음주에도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그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유타 에브라임에서 태어났으며 소년 시절 침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삼촌에 의해 집사로 성임되었다. 나는 감독에게 이 사실을 알려 래리의 회원 기록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옮겨지도록 요청했다. 한편, 진과 나는 래리에게 그의 집에서 복음 원리를 가르쳐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는 우리가 준 물문경을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 읽었다.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읽을 것을 부탁하며 두 번째 읽을 때에는 더욱 많은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그에게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를 주어 그의 공부를 도왔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와 함께 공부하며 몇 주 동안 그를 교회로 데



리고 갔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에 감독은 신권회 모임에 참석 하려는 래리와 나를 불러 세우고는 이렇게 말했다. “래리, 우리는 당신의 회원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가 다시 침례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말했다.

그때 무엇인가로 인해 그는 마음을 상했다. 우리가 대제사 그룹 모임에서 나오는 길에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돈, 나는 다시는 이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겠어요. 내가 이 같은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지키는 편이요.” 난 내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래리는 “감독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니 나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소.”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내게 집에다 데려다 달라고 했다. 가는 동안 내내 나는 감독이 뜻한 바를 오해한 것이라 설득해 보았고, 래리가 내릴 때, 그에게 여전히 같이 복음 공부를 해도 되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며칠 동안 마음이 몹시 아팠다.

뭔가 하기로 마음먹은 나는 교회 분부에 전화를 걸어 래리의 기록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집사로 성임된 기록은 곧 찾을 수 있었지만, 그의 침례 기록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도와준 그 자매의 답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를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말했다. 이를 후 그녀는 침례 기록을 찾을 수 있었고, 우리 와드로 회원 기록을 보내 주었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이제 내게 래리를 볼 명분이 생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침례 및 성임 날짜를 보고서 매우 기뻐했다. 우리는 우정을 새롭게 했다.

그가 활동 회원이 되게 하려는 내 희망은 다시 불붙었다.

래리는 그 사이에 자신의 골반을 교체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먼저 신권 축복을 받지 않겠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그는 “축복이 무엇이죠?”라고 되물었다.

내가 설명해 주자 래리는 받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감독에게 도움을 청했다. 감독이 축복을 해주었다. 래리는 자신의 몸에 흘렀던 뜨거운 느낌에 대해서와 또한 수술할 때나 빠른 회복



기간 동안 그가 느꼈던 평온한 느낌에 대해 그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그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자택 건강 관리 간호사가 자주 방문했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매일같이 그를 방문했다. 와드 자매들은 1주일 동안 먹을 음식들을 갖고 왔다.

래리가 회복하기까지 3~4주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수 차례 자신에게 주어진 도움을 깊이 감사했다. 나는 그가 교회와 감독과 그를 방문해 준 회원들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래리가 다시 교회 모임에 돌아오도록 도와야 할 시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 아내의 권유에 기꺼이 응하며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다. 진과 나는 다른 도시에서 열린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해야 했는데, 그의 결심이 시험받는 순간이었다. 나는 래리에게 다른 사람이 교회에 데려가도록 부탁해도 되겠느냐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일요일에는 그냥 집에서 쉬겠소.” 나는 그 말에 무척 실망했다. 우리는 돌아오자마자 그를 방문했는데 한 이



웃이 래리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었고 래리가 그와 함께 교회에 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영이 도움을 준 것이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래리의 삶에 미침에 따라 그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간증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한때 잊혀졌던 이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술을 마시는 습관에 젖어 왔는데도 우리가 만난 이후로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했다.

래리는 운전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아무런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운전 면허를 받게 되었다. 그의 면허증이 우편으로 배달되었을 때,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 뵙도록 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대제사로 성임되었다. 성전에 가는 것을 고려할 시기라고 생각되었다.

우리가 그의 집에서 가르친 공과에 성전에 관한 것이 나와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래리와 함께 그의 아내 빌리의 무덤에 화관을 수거하러 갔다. 나는 묘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 새겨진 문구가 적혀

래리는 성전에 갔을 때 각 방의 아름다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성전 봉사자들의 친절과 사랑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만약 하늘이 이러한 곳이라면 나는 그곳에 가고 싶소."라고 그는 후에 말했다.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아내가 죽을 당시에 그는 활동적인 회원이 아니었지만, 성전의 그러한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내가 그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위해 성전에 가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가 내게 "물론 가고 싶소."라고 했을 때 놀라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우리는 후에 그가 젊었을 때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살면서 성전을 수없이 바라보며 언젠가는 그곳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성전에 갔을 때 각 방의 아름다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성전 봉사자들의 친절과 사랑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만약 하늘이 이러한 곳이라면 나는 그곳에 가고 싶소."라고 그는 후에 말했다.

래리는 내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는 내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친절했고 자상하며 사람을 칭찬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나이에 비해 젊은 사람이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를 알게 된 것은 내게 큰 특권이였다.

교회에는 래리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영적인 기억의 황금실이 복음에 함께 했던 과거의 지식과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며,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신다. 때로 그들이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는 방법은 가까이 돕고자 하는 활동 회원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

목적이 있는 즐거움



재닛 토마스 사진 촬영: 글쓴이

텍사스 델라스 스테이크, 왓사하쉬 와드의 청소년들은 항상 재미있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모든 활동, 모든 반이나 정원회 회장단 모임, 모든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모임에서의 토론은 예외 없이 어떻게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재미란 특별한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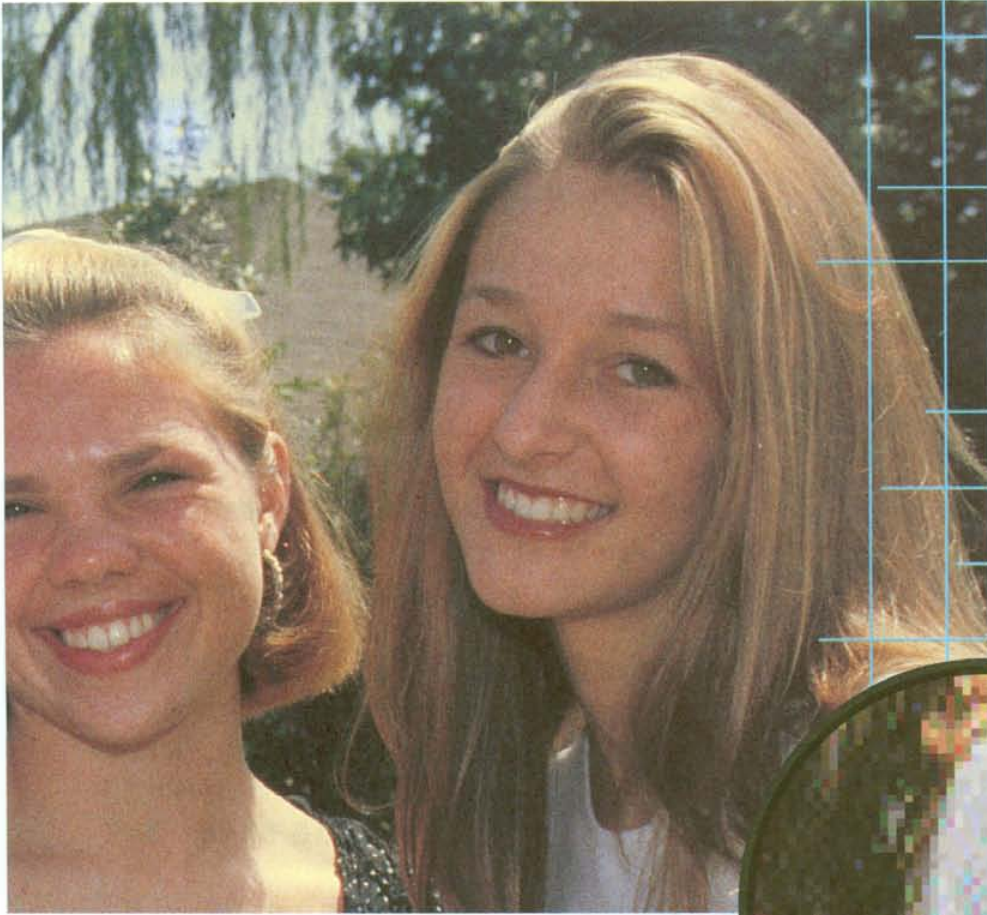
모든 활동에서 그 활동이 봉사 활동이든 야영 활동이든 게임이든 파티이든 간에 그들은 참석자들의 필요 사항에 맞춰 계획을 세

운다.

월계반 회장인 레이지 질스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종이에다 월계반 반원들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그러고는 명단을 보면서 그들이 하기 좋아하는 것들을 적고 또 모든 아이디어들도 적어 놓죠. 우리는 그들을 위주로 활동을 계획하며, 이것은 그들이 활동에 더 많이 참석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다음은 월계반 회장단이 와드 내의 월계반 반원들로 하여금 다른 반원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즐거움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여러분이 계획할 때 다음 원리
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활
동은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이
며, 참석률도 나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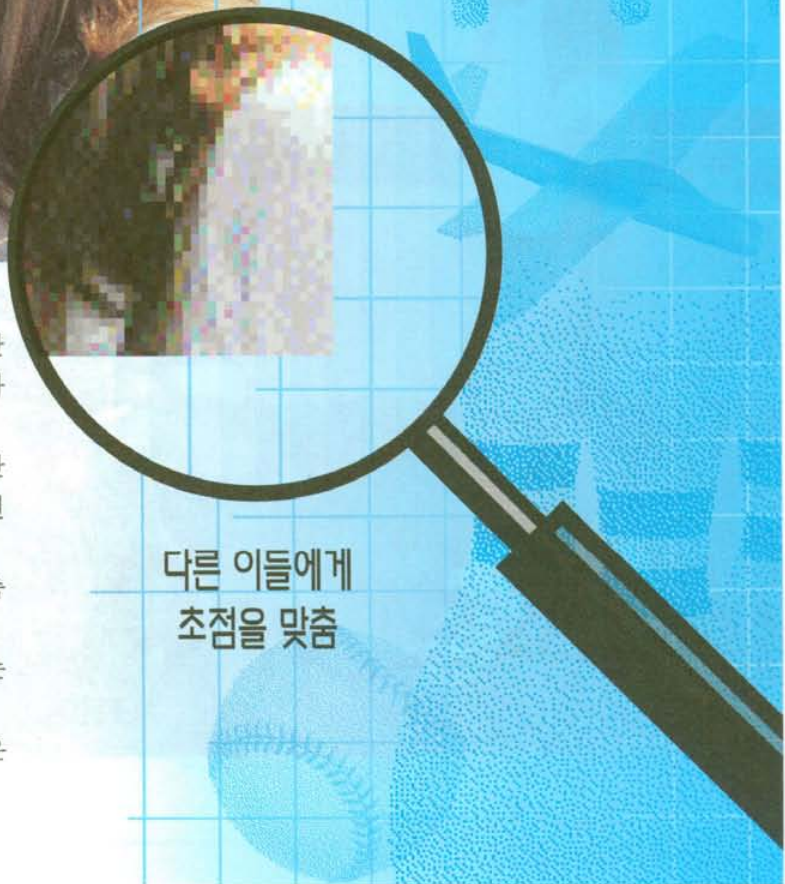
한 예로서 월계반 회장단은 활동이 저조한 반원들 가운데 특이한
인형을 수집하는 반원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가
좋아하는 인형들을 가져오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다른 예로서는 스페인 출신의 한 월계반 반원이 월계반
의 활동으로 와드 내의 청소년들에게 스페인 춤을 가르치기를 원
했다.

그녀는 활동을 계획했고 그녀의 부모님과 이모, 삼촌들로부터 춤
을 배운 후 와드의 청녀들에게 춤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대단히 성공적인 활동이었다. "우리는 그 아이와 춤추는
것이 즐거웠어요."라고 월계반 서기인 제니 렌서는 말했다.

이렇게 필요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며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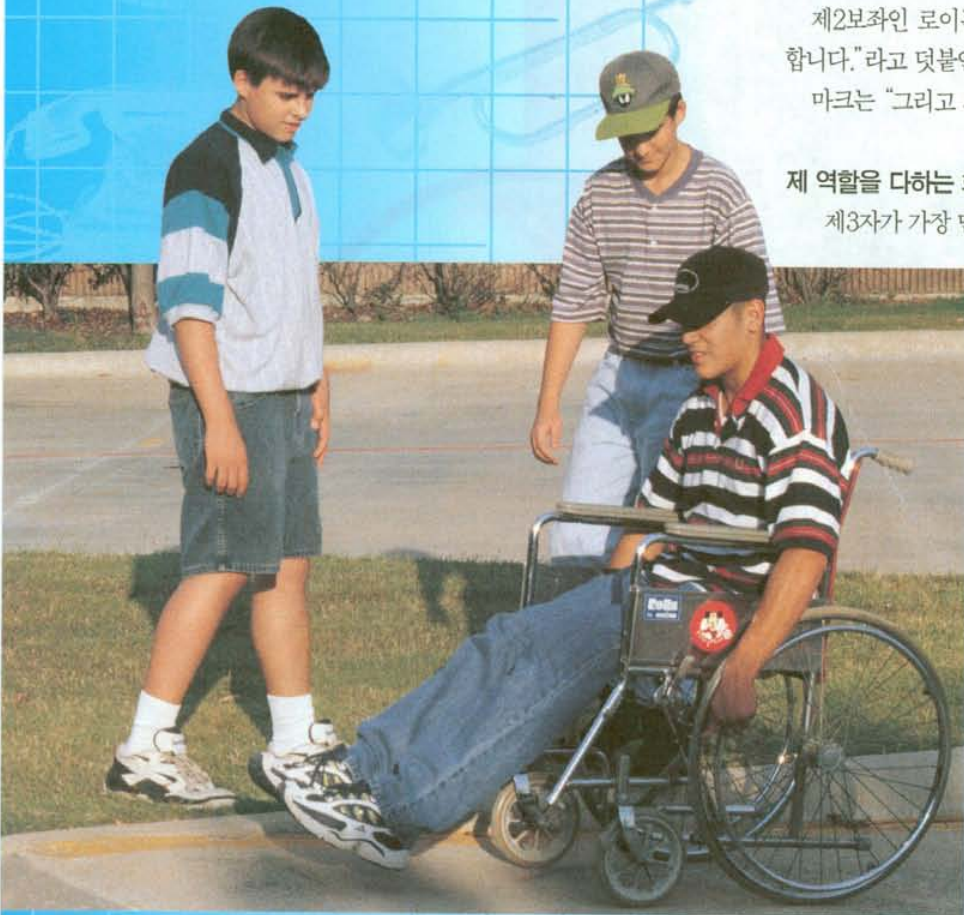
다른 이들에게
초점을 맞춤

앞쪽: 월계반 회장단인 제니 렌서, 제이미 사우스, 레이시 질스, 그리고 오드리 영은 구체적인 필요 사항들을 위해 활동을 계획한다.

아래: 대린(왼쪽)과 마크 존스의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 이들 형제는 다른 청소년들에게 장애인들의 고통을 설명하는 전문가들이다.

오른쪽: 첼시아 맥도널(왼쪽)이 스테파니 혼과 로크 콘트라라스에게 맹인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필요 사항들에 맞춰 계획함



청녀 반과 신권 정원회 회장단 모임 양쪽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다음은 집사 정원회가 자신들의 정원회 활동을 계획한 방법이다. 마크 존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정원회에는 여섯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성격에 비추어 그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을 계획한 거죠. 우리는 한 청년을 위해 한 가지 활동을 계획했고 그는 참석했어요. 그는 계속 참석하기 시작했고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 명만을 위한 활동은 자칫하면 다른 것을 원하는 정원회의 회원들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 집사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융통성 있고 유연성 있게 계획했다.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마크는 말합니다.

제2보좌인 로이든 제프리도 "그리고 일정을 재조정하고 재조정합니다."라고 덧붙인다.

마크는 "그리고 제대로 되도록 바꿉니다."라고 계속 말한다.

제 역할을 다하는 회장단

제3자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집사 정원회 회장단과 와드 내의 다른 모든 정원회와 반 회장단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도 아주 잘해 낸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

그들은 항상 지도자 지도서를 갖고 있으며 모임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고, 고문들도 참석한다.

지역이 넓은 이 와드는 회장단들이 제각기 편리한 시간인 일요일이나 매주 활동을 하기 전이나 후에 모임을 가진다. 모든 회장단들은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모임에 참석한다.

하지만 그때는 모든 활동들의 계획이 끝나고 임무를 지명하는 일만 남게 된다.

이번 달의 청녀와 청년들의 합동 활동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번 활동은 "특별한 필요 사항에 관한

밤"이다.

청소년들은 휠체어에 앉아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건물이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드나들기가 얼마나 용이한지를 배우게 된다. 그들은 또한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다른 사람의 시범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이 활동은 재미있으면서도 소중한 목적이 있다. 이 활동은 몇몇 청소년들과 다른 와드 회원들의 필요사항과 일치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와드 회원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청년의 한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그녀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 앞으로 그녀를 더 잘 돕게 될 것이다.

한 청년의 할아버지는 맹인이다. 그녀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시범을 보여 줄 것이다.

또 다른 와드 회원은 청력을 상실했다. 한 청년이 다른 이들이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는지 시범을 보일 계획이다.

청소년 위원회는 6개의 그룹을 나누어 각각 활동의 임무를 맡는다.

한 그룹이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오기로 자원하자 다른 그룹은 음료수를 가져오기로 한다. 곧 청소하는 일만이 남게 된다. 그것은 집사들의 몫이 된다.

모두들 웃기 시작한다. 집사들은 청소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선수를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청소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각 회원에게 신경을 씀

매달 각 반이나 정원회 회장단의 모임 순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잘 안 나오거나 전혀 나오지 않는 회원들에 관한 것이다.

집사 정원회에는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두 명이 있다.

회장단 모임에서 마크 존스는 "프랑스시코를 본 사람 있니? 하고 묻는다. 로이든이 대답한다. "최근에는 못 봤고 마지막으로 본 게 2주 전이야."

마크는 말한다. "감독님께 말씀드려 볼게. 내 생각엔 그가 교회로 오는 교통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로이든은 이제 그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얘기한다.

그들의 와드는 지역이 넓어서 서로에게 연락을 하려면 장거리 전화를 걸어야 한다. 로이든은 장거리 전화를 쓰지 않고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떡이 사슴과 같아." 하고 로이든이 말하자 나머지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곰과 사슴 그리고 풀과 같지. 무엇이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이 먹히는 것이지." 하고 로이든이 말을 이었다. 그 말에 "아!" 하고 제1보좌인 제이 베나블이 감탄한다.

"전화망.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그들은 곧 정원회 회원들이 전화 요금을 낭비하지 않고도 연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위임, 위임, 위임

일을 분배하고 위임하는 것이 왁사하쉬 와드의 청소년 회장단이 배운 가장 큰 리더십 기술 중 하나이다.

레이시 길스는 말한다. "회장으로서 저는 조직하고 위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위임하는 법은 제가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이 보다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해주죠. 위임을 통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하고 지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되고 보다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일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청년 회장인 클라크 자매가 활동을 계획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은 '누가 이걸 잘할까? 누가 이 일을 제일 잘할까? 누가 이 활동을 진행하면 도움이 될까? 누가 지도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녀는 내게 위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임무를 지명 받는 것은 일치감을 느끼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제사 정원회의 제1보좌인 마이클 사우스는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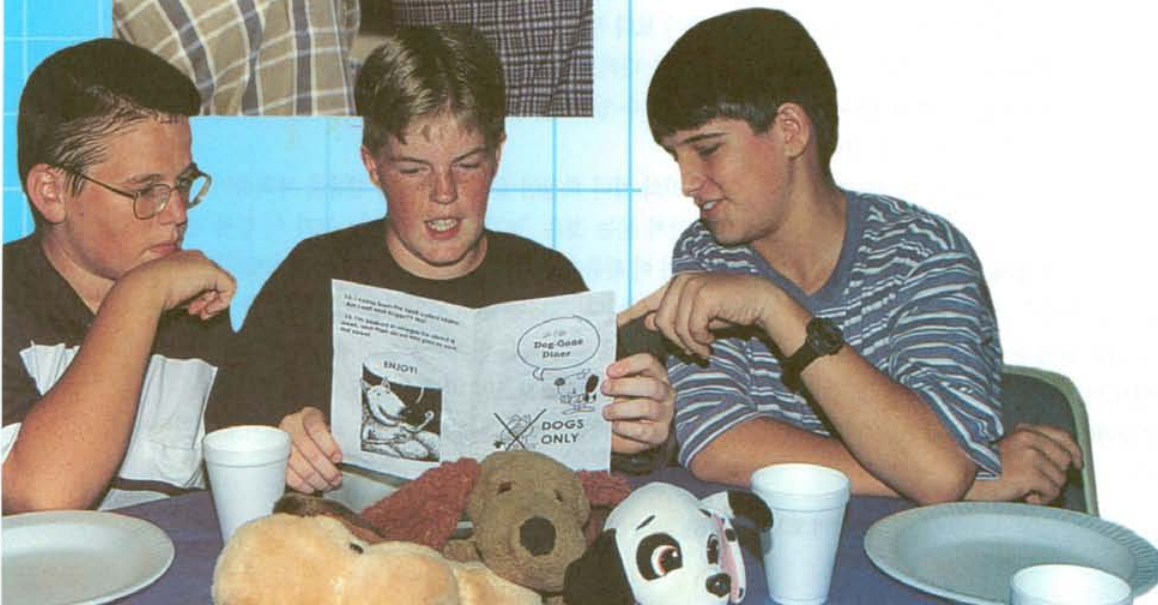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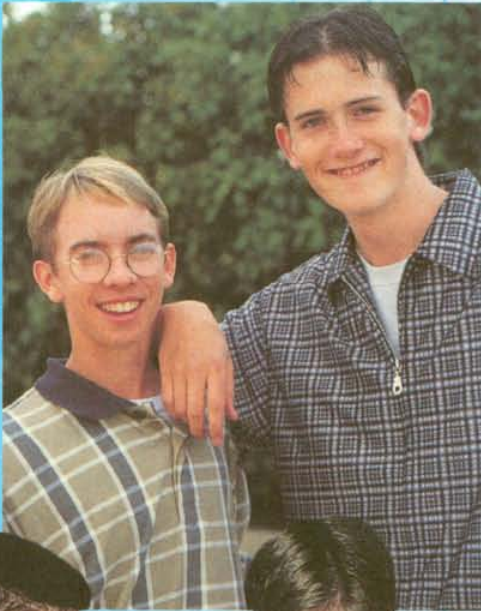
"누군가가 회장단에 속하게 되면 그는 정원회에서보다 활동적이게 됩니다."

맨위: 리스 엘리스(오른쪽)는 정원회 회장인 니클라크(왼쪽)가 청소년 활동과 교회 모임에 초대함으로써 다시 활동하게 되었다.

맨 아래: 로이든 제프리스, 보 맥도넬, 그리고 마크 존스가 지난해의 가장 인기 있었던 활동인 "크레이지 캣 카페" 이어서 "도그건 레스토랑" 활동의 메뉴를 점검하고 있다.

집사들은 메뉴에 수수께끼를 써넣어 아무도 무엇을 주문하는 것인지 모르게 했다.

즐겁게 함께 일함



마이클이 소속된 정원회에서는 거의 모든 회원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회장단은 위원회를 조직해서 성전 임무, 캠핑, 스포츠, 신권 임무, 봉사 활동 등을 분담하게 된다.

각 위원회의 장은 정원회의 다른 회원들이 나누어 맡고, 그러면 결국 정원회의 모든 회원들은 위원회의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누구나 다 지도자이다

와드에서 청소년들이 배우게 되는 리더십 능력은 그들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미셸 클라크가 청녀 회장단에서 배운 원리들은 그녀가 학교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비록 2학년이지만 미셸은 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조직하고 학생들의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그녀의 능력이 당선된 주된 요인이었다.

확사히셔 와드에서는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가 자주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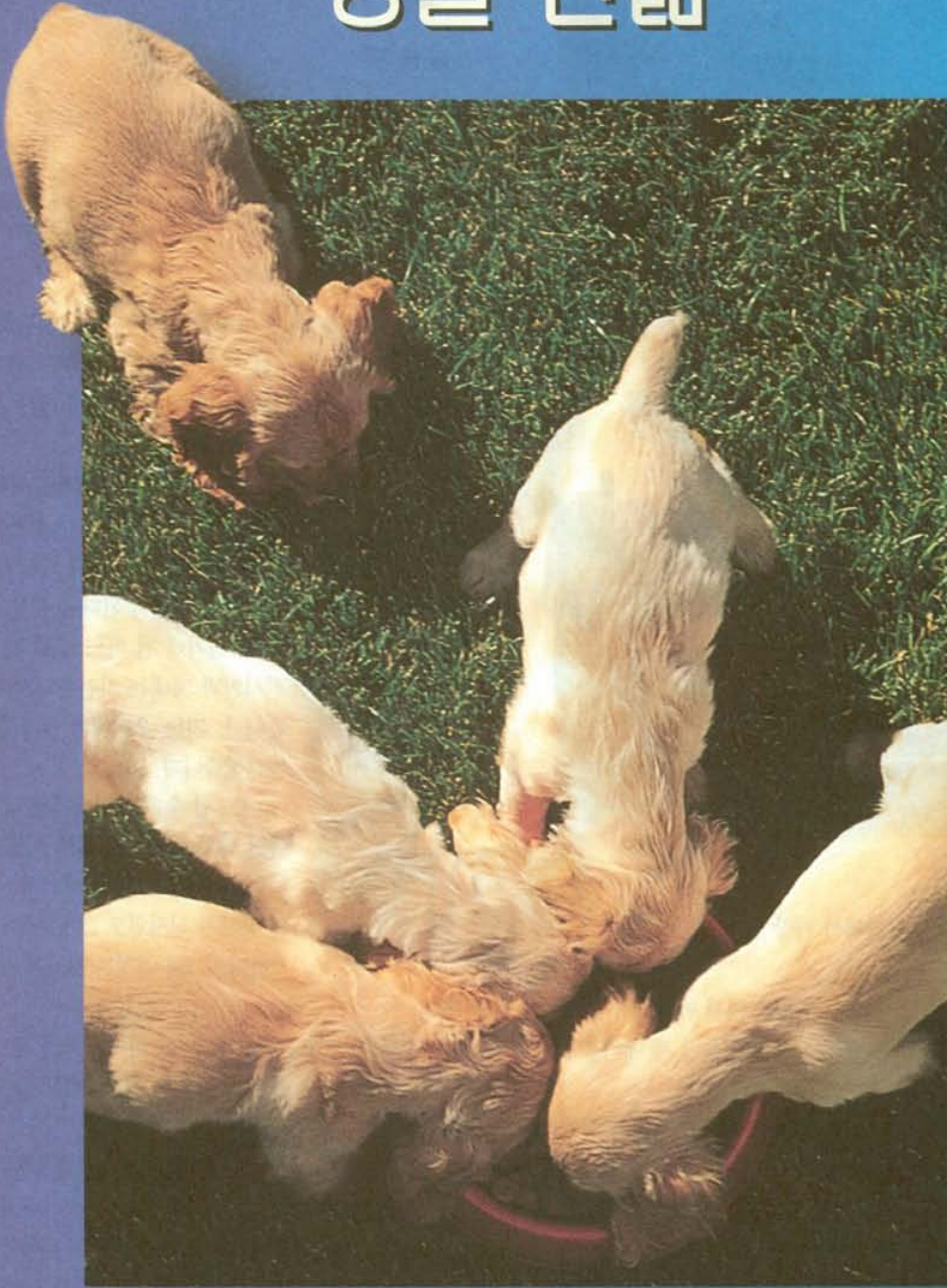
10대들은 자신들이 비록 회장단에 있지 않더라도 어떤 행사나 위원회를 맡을 기회는 항상 있다.

그 결과로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보다 중요한 일은 그러하면서 개개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즐거움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다. □

물론 메시지

모든 사람을 위한 방을 만듭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주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굶어 죽어 가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리와 성약 38:25 참조)

인기

앤 빌링즈



에 올 때까지도 그렇게 인기 있는 선샤인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선샤인이 제가 하는 어떤 말도 멍청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망쳤습니다.

여러 해가 흐른 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선샤인과 저는 교지의 공동 편집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달 어느 날 저녁에 함께 교지를 편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시기에 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선샤인과 지내는 시간을 즐거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공통점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6학년 때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 좋았던 그 시절이 지나가서 좋다고 말하자 선샤인도 그렇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그때 내게는 친구가 없었어."라고 했

제가 볼 때 선샤인은 6학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아이였습니다.

선샤인은 좋은 옷을 입고 다른 인기 있는 여자 아이들과 웃고 떠들며 어울려 다녔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아이들이 제 얘기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와 제 형제들을 학교에서 선샤인과 함께 집으로 데려올 거라고 하셨을 때 저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림을 가르치는 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선샤인이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두려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첫 시간이 돌아왔고 그녀가 우리의 형편없이 낡고 못생긴 벤에 올라탈 때 저의 두 뺨은 부끄러움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선샤인은 아마 멋진 스포츠카에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집

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건방져서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함께 집으로 왔던 순간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선샤인도 나한테 말을 걸기가 두렵고 어색했을까? 비록 사람들에게 항상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이도 나처럼 그 해가 외롭게 느껴졌을까? 만약 그때 내가 자신만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에 대해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때의 대화 이후 저는 구세주의 모범처럼 당연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뿐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누구도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을 만큼 인기가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필멸의 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부활할 수 있고, 의식을 받고 복음의 성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승영을 얻을 수 있다. 브리감 영 대판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분은 모든 빛을 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각자 해당하는 왕국에서 해당하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죄의 값을 치르고 그 영광을 획득하셨기 때문입니다.”(교회 대판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1997년), 38쪽 참조)

그리스도의 속죄는 부활과 영생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고난 당할 때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하고, 고난 당할 때 견딜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준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진다.

용서

어느 한 자매는 남편이 자기를 배신한 사실을 고백했을 때, 남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경전을 공부하고 성전에 다니면서 위안을 찾았다. 그 자매는 이렇게 썼다. “돌이켜 보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힘과 위안을 얻은 것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곁에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올 때

저와 함께 슬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언제나 죄인이 회개하면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방편으로만 보아 왔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죄인을 용서해 줄 때, 그리스도의 속죄는 용서가 낳는 감미롭고 평화로운 느낌을 그 사람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앤사인, 1997년 2월호, 43쪽)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본받게 된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괴롭히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온전하시며 동정심과 이해심, 인내심으로 가득한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간청하시며, 권고하시고, 강화하고 복돋아 주시며, 굳건하게 해주십니다.”(“용서를 구함”,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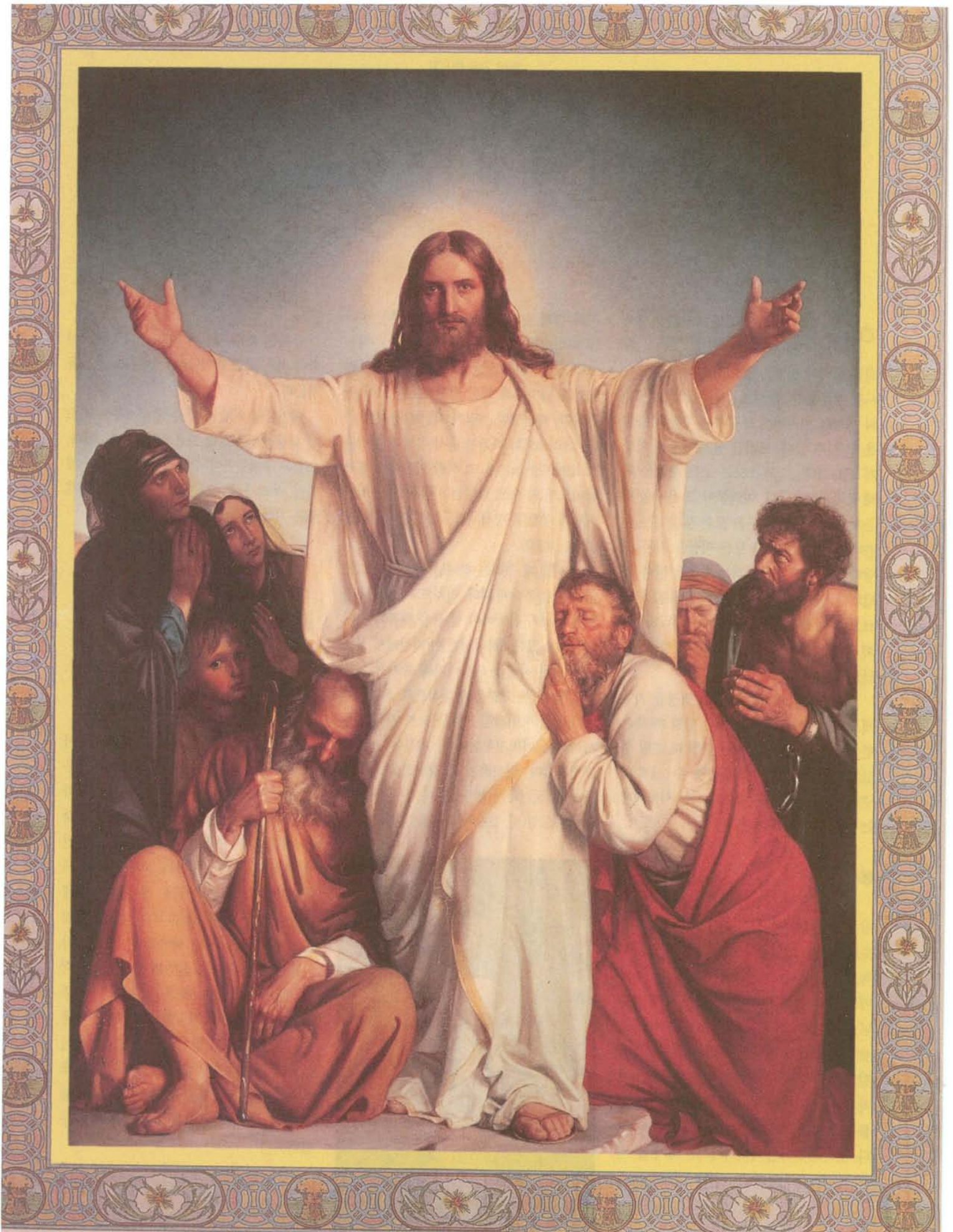
은사

우리는 모두 자신이 지은 죄나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 구세주의 지고한 희생을 생각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구세주만이 주실 수 있는 은사인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는 구세주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죄 값 인해 못박혀 피 흘리셨으니
그 자비 사랑 헌신 내 어찌 잊으리
영화로운 보좌에 무릎 꿇 때까지
경배하고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3절)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인 헨리 비 아 이어링 장로는 한때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생활에서 작용하는 속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자비심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행하기로 약속한 대로 그와 그의 은사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소망의 빛을 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 필요가 있는 모습입니다.”(“신앙의 불씨”,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98쪽) 우리가 구세주와 그분의 속죄를 기억할 때 우리는 방종한 자녀를 집으로 맞이할 수 있고, 늙으신 부모님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평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지니 머캘리스터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는 에밀리 할머니의 방에 들어가보면 벽이 온통 바레너와 가족이 보낸 생일 카드로 환하게 장식되어 있다. 그러나 에밀리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계신다. 할머니는 주름살이 많고 이가 많이 빠져 있어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신다.

친구 브라이언은 “바레너의 할머니가 손녀를 알아보셨는지조차 의아스러웠어요. 하지만 천사 같은 바레너의 사랑깊은 행동을 지켜 보는 사이 그러한 어색한 느낌은 곧 사라졌어요.”라고 말한다. 바레너는 할머니에게 음료를 따라 드렸고, 할머니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 드렸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할머니와 함께 가졌던 추억들을 다정하게 들려 드렸다. 그런 뒤에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서 배웠던 자장가를 불러 드렸다.

바레너는 “할머니는 제가 할머니 이마에 손을 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빗어 줄 때 제일 좋아하셨어요.”라고 말한다. 그렇게 해드리면 할머니는 바레너를 곧 알아보시고 방긋 웃곤 하셨다. 바레너는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 주려 노력했다. 브라이언은 “저는 그때 병 고침의 은사를 보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말한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음

인간의 마음을 치료함에 있어 단순한 사랑의 행위가 가져 오는 힘에 대해 나는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

사랑스러운 말이나 표정, 또는 애정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랑이란 그토록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전세에서 사랑의 힘과 언어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현세에서 사랑을 받을 때 사실은 전세에서 하늘의 부모와 함께 생활할 때 겪었던 똑같은 느낌을 맛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8절에서 바울은 모든 덕목 가운데서 순수한 사랑이 가장 뛰어난 것을 깨우쳐 준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우리의 기도에 의미와 내용을 부여한다.(엘마서 34:28 참조)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함 받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모사이야서 4:26 참조) 사랑은 해의 왕국 결혼의 기초가 된다.(에베소서 5:25 참조) 사랑은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위대하다.(고린도전서 13:13 참조) 사랑은 단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복음 원리가 아니라 복음 자체이다. 사랑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마태복음 22:36~40 참조) 사랑을 통해서만 신권의 권능이 유지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21:41~45 참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졌다.(요한복음 3:16 참조) 사랑은 시들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고린도전서 13:8 참조)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을 실행



바레너는 할머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겨 드렸다. 그러면서 과거에 할머니와 함께 가졌던 추억들을 다정하게 들려 드렸다.

할 수 있는 실습장과 육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상 생활은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사랑스런 하늘의 부모가 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한 수련장이다. 우리가 지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다음 세상으로 가져 갈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역시 사랑의 성품일 것이다. 모로나이는 이같이 가르쳤다. "사람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진대... 아버지의 전당에 마련된 처소를 상속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이더서 12:34)

나의 가정 복음 교사 마이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죽은 자들을 구속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교회의 모든 보조 조직과 프로그램은 복음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우리의 사랑과 봉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독신 청년인 *개리는 그의 와드에서 언제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와드 회원들은 대다수가 가족들이었다. 개리가 실직자가 되어 차도 없었을 때, *마이크가 그의 가정 복음 교사가 되었다. 개리는 이렇게 말한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마이크가 공식적으로 저에게 가정 복음 교사로 가르쳤던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요일마다 저한테 와서 자기 차로 저를 교회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가 고등 평의원이 된 이후로는 자신의 말씀 시간에 참석시키기 위해 저를 데리고 가곤 했지요. 마이크는 아이가 여섯이나 있어서 시간 여유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언제나 저를 위해서 시간을 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우리는 종종 마이크의 승

*가명

용차 안에서 지난 1주일 간의 일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하곤 했지요"

개리는 계속 이렇게 말한다. "마이크는 제가 자가용을 구입한 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자기 차에 태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죠. 어떤 주말에는 그의 가족과 함께 저를 대학 축구 시합에 데리고 간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말에는 함께 일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나 서신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서로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원한 친구입니다."

서로 사랑함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데 교회의 공식적인 부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았을 때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며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로하겠다고 성약을 맺은 자들이다.(모사이야서 18:8~9 참조) 구세주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구세주께서 하신대로 행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스코트와 *제리는 자기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성도들 사이에서 지내는 축복을 누린 부부였다. 스코트가 교회에서 파문을 당한 지 12년째 되던 해였다. 그 해에 이 두 부부는 네 명의 자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이들 부부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다. 이들은 이사한 지역에서 "자녀들을 위해"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스코트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지만 다시 입교하지는 않겠다고 우겼다. 스코트와 제리는 이사한 지역의 와드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 와드 회원들은 스코트가 교회에서 파문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에 대해 험담을 하지 않았고 또 파문 당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스코트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스코트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저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했습니다. 이 와드를 처음 방문한 일요일 이후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 스코트는 재침례를 받았고 그의 신권 축복도 결국 회복되었다. 그의 파문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은 성전에서 스코트 부부에게 인봉되었다. 제리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는 우리의 두 자녀가 하얀 의식복을 입고 인봉설로 들어가는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인봉실에서 우리와

스코트 가족이 새로 이사한 지역의 와드 회원들은 스코트가 12년 전 파문 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그를 비판하지 않고 따듯이 맞이해 주었다.

함께 있었던 교회 회원은 적어도 7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 있었던 분들은 모두가 우리 가족으로 느껴졌어요! 그 분들은 우리 형편이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우리가 실의에 빠졌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시 활동화되어 성전에서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써 시온의 백성을 격려함

스코트 형제의 당시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와드 회원들은 사랑으로 충만한 와드가 바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장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뭉쳐 단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려고)' (모사이야서 18:21)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감독 시절에 저는 우리 와드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스코트와 같은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와드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감독이 말하는 단합은 에녹의 성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준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있음)이더라." (모세서 7:18)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구할 때, 우리는 바로 사랑으로 충만해짐으로써 해의 영광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된다.



가정에서의 사랑

우리는 그 어느 곳보다도 우리 자신의 가정 내에서 사랑을 더 많이 보여 주어야 한다. 가족끼리 혈통은 습관을 갖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는 길로 나타나는 결점은 지나쳐 버리고 내재하는 좋은 점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사랑해줄 때, 그것은 곧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된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아무리 그들이 고집스럽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자녀들과 말을 할 때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는 식으로 거칠게 말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씀시다. 필요한 때에 그들을 위로해 주고 함께 슬퍼



개리의 담당 가정
복음 교사는 개리 형제들
교회의 정규 모임과 기타 활동
모임에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복음 토론은 영원한 우정으로 발전했다.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같이 눈물을 흘리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달래 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꾸중하지 마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으로부터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매를 듣거나 폭력을 쓰지 마시고 정당한 이유와 설득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토론하고 상의하십시오.”(복음 교리, 285쪽)

“어린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배우게 하고 성취하게 하고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역시 사랑의 영향입니다.”(복음 교리, 264쪽)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명확하게 지시하셨지만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훈계를 주지 않으셨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인봉되어 서로에게 속하게 된 이상, 서로를 지배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그와는 반대로 주님은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주님의 영은 슬퍼하여 물러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다.(교리와 성약 121:37 참조)

시인 사라 티스데일은 “소유할 가치가 있는 어떠한 사람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마음의 거울(1984년), 122쪽(영문)) 우리는 우리의 친구, 배우자,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까지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내로써 자기 자신만을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고린도전서 13:4; 교리와 성약 10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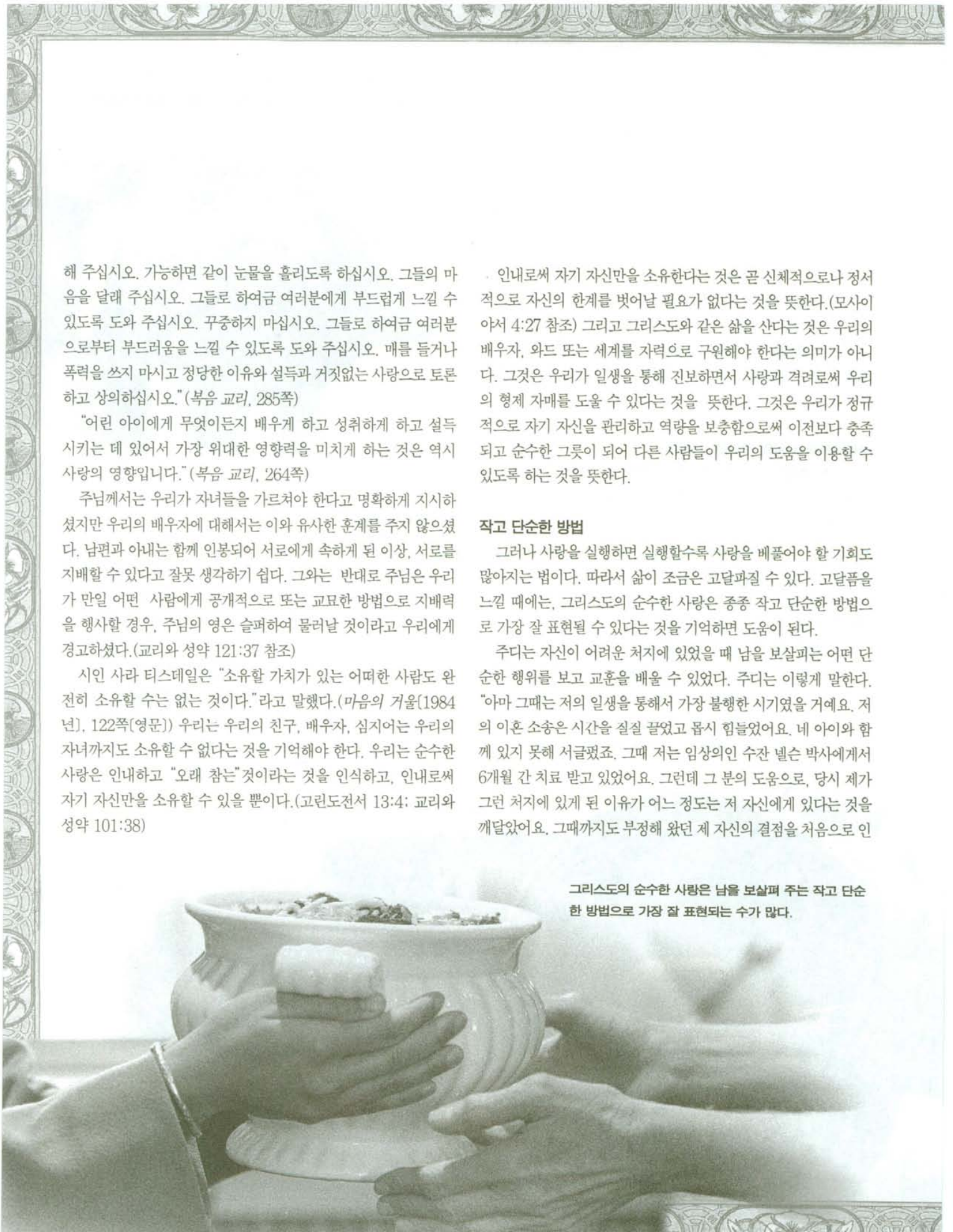
인내로써 자기 자신만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모사이야서 4:27 참조)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배우자, 와드 또는 세계를 자력으로 구원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 진보하면서 사랑과 격려로써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정구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역량을 보충함으로써 이전보다 충족되고 순수한 그릇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작고 단순한 방법

그러나 사랑을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사랑을 베풀어야 할 기회도 많아지는 법이다. 따라서 삶이 조금은 고달파질 수 있다. 고달픔을 느낄 때에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종종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주디는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남을 보살피는 어떤 단순한 행위를 보고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주디는 이렇게 말한다. “아마 그때는 저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불행한 시기였을 거예요. 저의 이혼 소송은 시간을 질질 끌었고 몹시 힘들었어요. 네 아이와 함께 있지 못해 서글펐죠. 그때 저는 임상의인 수잔 넬슨 박사에게서 6개월 간 치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도움으로, 당시 제가 그런 처지에 있게 된 이유가 어느 정도는 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도 부정해 왔던 제 자신의 결점을 처음으로 인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남을 보살피며 주는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가장 잘 표현되는 수가 많다.





수술 후 나의 의식이 깨어나는 동안 간
호사의 손길이 준 사랑스러운 촉감은 나
에게 평안과 위안의 느낌을 주었다.

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의 그런
결점들이 저 자신을 몹시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저는 넬슨 박사의 사
무실에서 제가 잃어버린 온갖 귀중한 것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죠. ‘보수를 받고 일하는 여의사가 나에게 대해서 그
토록 염려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왜 나 자신에 대해서(나 자신의
결점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그토록 마음을 쓸 수 없을까? 그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정말 그 시점이 제 생애
의 전환점이었어요. 넬슨 박사의 사랑스러우면서 남을 염려하는
태도는 제가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저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를 잊고 현재
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우선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랑이란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로에 대해 생각하
는 태도나 서로를 대하는 방법,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
은 순수한 사랑 안에서만 위대한 힘—초감각적으로 알 수 있고, 또
는 알려질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은 우리가 “마음을 기우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를 볼 것이며, 우리가 저와 같이 되(도록
하라)”(모로나이사 7:48)라고 권고했다. 구세주의 모습을 알아보
는 것과 그분의 영을 인식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가
장차 구세주를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처럼 되
는 길뿐이다.

이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생애의 어느 한 짧은
시간 동안 우연히 사랑스런 손길을 받았던 일이 떠오른다. 어
느 해 12월, 나는 뜻밖에도 외과 수술을 받게 되었다. 회복실
에서 내가 서서히 깨어나는 동안 나는 누군가의 손이 나의 맥박을
검사하고 그 밖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돌보고 있음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그 손길은 정성스러운 느낌이었고 평안과 위안
의 느낌을 주었다.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이 잘되고 있음을 즉시 알
았다.

그때 나는 반무의식 상태에 있었지만 그때의 그 느낌은 나의 영
에 생생히 각인되었기 때문에 의식이 완전히 깨어났을 때에도 나는
그 손길이 준 촉감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내가 입원한 그 주 동
안, 많은 간호사들이 나를 보살펴 주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찾고
자 하는 간호사를 한번도 보지 못했다.

내가 퇴원하던 날 아침, 한 간호사가 들어와 마지막 검진을 했다.
그때 나는 즉시 그녀가 주는 촉감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난 간호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전에 나를 간호하려 오신 적이
있었죠?”

그러자 그 간호사는 놀란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네, 있어요. 하
지만 단 한번뿐이었어요. 5일 전에 회복실에서 선생님을 간호했었
죠.” 이 경험은 여러 해 전의 일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녀의 손길
을 통해서 느낀 친절과 사랑을 지금도 떠올릴 수 있다.

이 순수한 사랑의 영적 인식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구세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 역시 우리를 아실 것이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구세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
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
여 목숨을 버리노라”(요한복음 10:14~15)

우리 모두 사랑으로 양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를 따라 생활하기
바란다. 그리하면 참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도 우
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다. □

떡과 물고기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한나절 바쁘게 일한 후 나는 나의 고달픈 생활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위안이 필요했다. 나는 경전을 통해서 구세주의 도움을 발견했다.

캐런 로우즈 머클리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나도 자식들을 키우느라 쉴 새가 없다. 물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한없이 기쁘다. 하지만 사랑해 주고, 놀아 주고, 이야기해 주고, 가르치고, 씻겨 주고, 먹여 주고, 달래고 하는 등 자녀들을 보살펴야 하는 일이 시계의 똑딱 소리처럼 계속 이어진다. 한창 바쁜 때에는 나 자신을 개인적인 평안을 가질 틈도 거의 갖지 못한다.

최근에 나는 바쁜 중에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신약전서에서 읽고 위안을 찾곤 했다. 그 이야기를 읽는 동안 나는 이 성구 내용이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보살펴야 하는 일과 관계가 있음을 알았다. 정말 필요한 때에 위안을 준 이야기였다.

주님은 그의 성역 기간의 어느 한 시점에서 침례 요한의 잔혹한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따로 빈들" (마태복음 14:13)로 나아가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혼자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시고 병 고침과 보살핌을 구하는 큰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리고 나서 무리와 그의 제자들이 떠난 후 주님은 "따로 산에" (마태복음 14:23) 오르셨다.

이 이야기를 읽는 동안 나는 영의 도움으로 구세주는 나의 고달픈 생활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은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을 때의 느낌과 사람들이 저녁때까지 온종일 "여러 고을로부터" 와서 자신을 쫓았을 때의 고달픈 느낌을 알고 계셨다. (마태복음 14:13; 마가복음 1:32~37 참조)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주님은 그런 육체적인 고달픔을 겪으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머니로서 할 일이 많은 나의 입장을 이해하실 것이고, 따라서 아이들이 팔을 벌려 보채고 울기 때문에 나 자신의 휴식 시간이 뒤로 미루어져야 하는 때가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임에 분명하다.

나의 관심을 끈 이 성구 내용에 심취하면 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달픔과 날이 어두

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의 원기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원기부터 회복시키려고 그들의 식사를 준비하신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이 병든 자식들을 보살피고 바쁘게 집안일을 하느라 지쳤음에도 부엌으로 가서 남편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던 때를 떠올렸다. 그러자 내 마음은 갑자기 구세주께서 나의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때로는 고르지 못한 나의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알고 계신다는 느낌으로 충만해졌다. 구세주께서 나의 노력을 입증해 주신 것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야)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그렇다면 **주방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끝낸 후) 제일 나중에 나오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할지** 주님께서 **아시겠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았다.

돌이켜보면 그 바쁜 날 경전을 들고 침대에 주저앉아서 내가 급히 찾고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든다. 사실 나는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했다기보다 구세주께서 나의 고달픈 생활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나는 구세주께서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셨던 것에,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뿐



만 아니라 주님께 대한 나 자신의 사랑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시는 주님의 희생에 대한 나 자신의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

나의 휴식 시간은 늘 맨 마지막이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날이 저물어 거기 혼자 계셨을 때처럼...(마태복음 14:23 참조) 휴식을 취한 뒤 어머니로서의 할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 구세주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더욱 다지게 되었다. □

그분의 모범적인 생애를 통해 인도됨

조앤 버 웨스턴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그림: 마이클 데이 넵슨,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성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구세주의 지도력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우리를 겸허하게 하는 경험이 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 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지도력에 대해서는 한 권의 책이나 기사로 다룰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에게서 성숙과 힘과 용기의 고상하고 완전하며 아름다운 모든 특성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예수님: 완전한 지도자”, 성도의 벗, 1983년 8월호, 11쪽)

완전한 모범

“이 사업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교리와 성약 12:7)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하며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자비의 덕을 지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면 어떠한 일이나 모두 삼가 조심히 행하는 자 아니면 이 사업을 도울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2:8)

또한 교리와 성약 107편의 선권에 대한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관리 정원회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모든 교회 회원이 발전시켜야 할 놀랍고도 감동적인 속성과 자질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의와 거룩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신앙과 유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애와 사랑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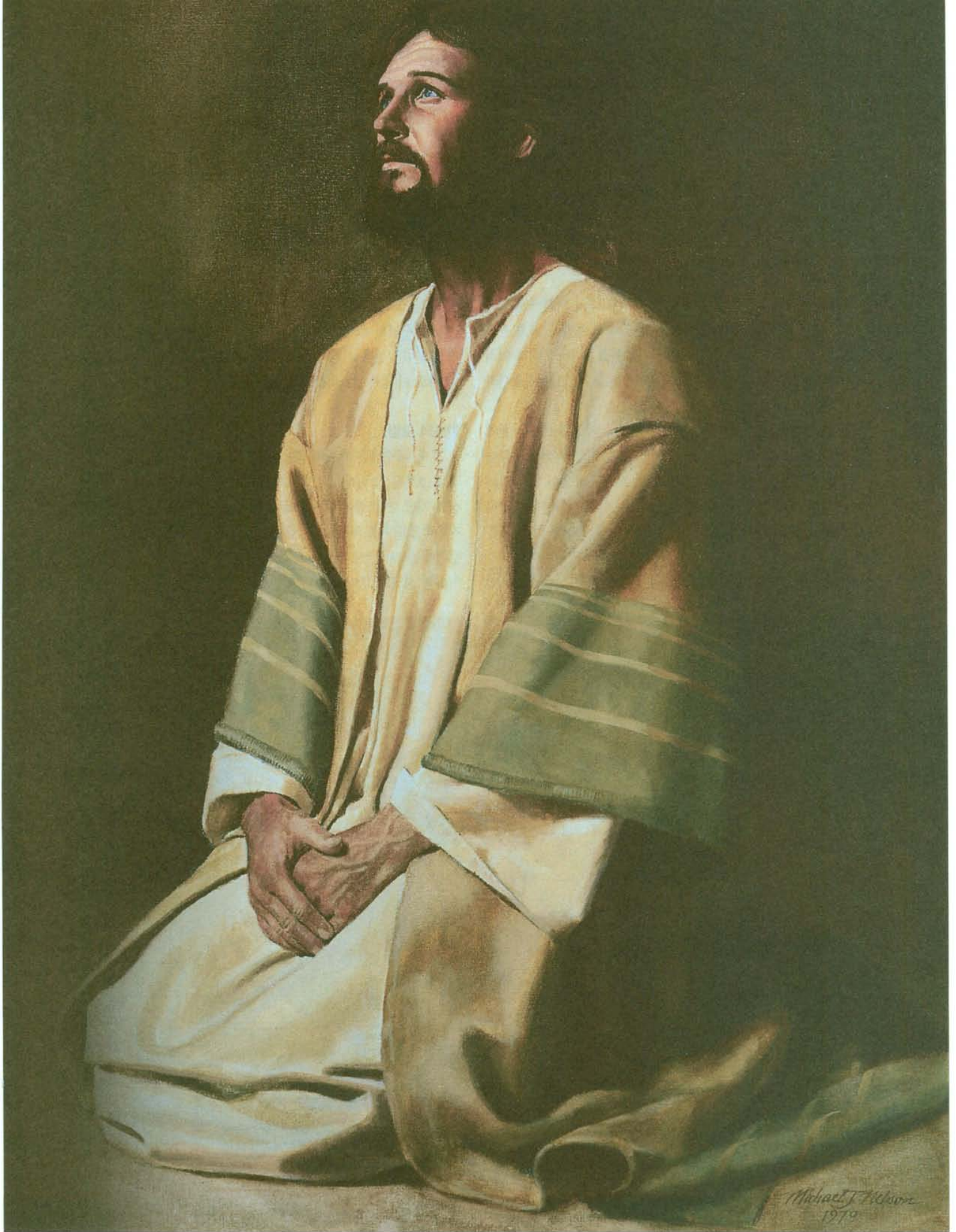
“이는 만일 저들이 이것들을 풍성히 지니면 주에 관한 지식이 결코 궁핍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약속이 있음이니라.”(30~31절)
이러한 자질들은 모두가 분명 그리스도의 특성들이며 그분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사실상 구세주께서는 몸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고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고자 노력하지만 이 생애에서 완전을 달성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 달성에 대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의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그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의 ‘온전’이란 말은 그리스어에서 번역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잠재력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정해 주신 과정을 ‘완수’하기 위해 ‘충분히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우리가 ‘근면과 순종’을 통해 발전시키는 만큼 ‘부활한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할 것이며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교리와 성약 130:19)을 것입니다.”(그리스도의 백성들[1991년], 21~22쪽)

완전은 궁극적으로 이 생애에서 다 이룰 수 없다 해도 노력할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구세주와 그분의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모범을 따른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모로나에서 10:32)라는 경전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분이 되노라.”(니파이삼서 18:16)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 오너라”(마태복음 4:19)라고 자주 말씀하셨니



Michael J. Wilson
1979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 들 빛이니 너희는 나의 행함을 본 대로 행하라
보라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친히 목격하였고”

다. 그분의 계획은 “내가 말한 것”이라기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수 겸손히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15)

물론 모든 일에서 우리의 완전한 본보기가 되셨던 예수님에게도 완전한 본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몸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한복음 5:19)

오늘날 교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사업을 함에 있

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를 통해 우리는 구세주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이 지상에서의 성역 기간 동안 최소한 세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이끌고 인도하도록 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범

첫째,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이상으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지도와 힘을 간구하셨습니다.

경전에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한 성구가 많이 있습니다. 마



그림: 벨 퍼슨, 그리스도와 동행중인 어린이들

가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마가복음 1:35) 나가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또한 구세주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누가복음 5:16)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누가복음 9:28, 28~36)신 후 변형되었습니다. 경전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누가복음 22:32 참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요한복음 17:9 참조) 기도하시고 힘들었던 그분의 속죄 직전에 그분 자신을 위해(마태복음 26:39 참조)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전 이야기 중에 있는 가장 감동적인 기도 중 하나는 니파이삼서에 나와 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니파이인들을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17:17)

그 뒤에 같은 기사에서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21절) 그 후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24절)는 믿을 수 없는 영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니파이인들을 위해 여러 번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빛을 들어 세상을 비치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 들 빛이니 너희는 나의 행함을 본 대로 행하라. 보라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친히 목격하였고”(니파이삼서 18:24)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역 기간이 끝나 갈 즈음에 예언자 니파이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힘을 잃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무것도 주 앞에 행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일이 너희들 영육에 이

로운 것이 되도록 내가 행한 일을 네게 성결케 하시리로다.”(니파이서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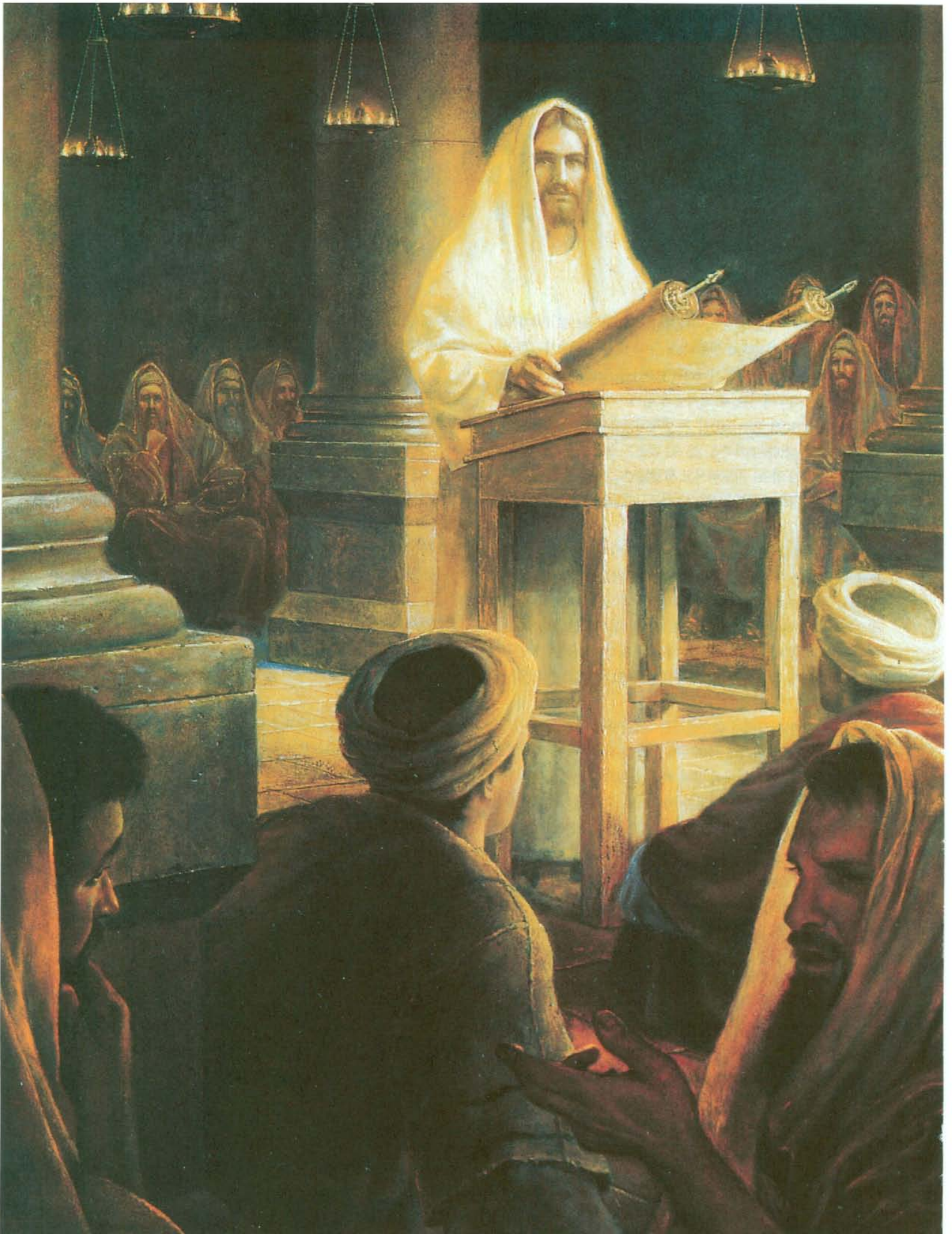
경전 공부 및 가르침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지도력의 두 번째 특징은 그분이 경전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무시키신 것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그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토론하기를 즐기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사두개인들이 애매한 교리를 물어 구세주를 곤경에 빠뜨리려 한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마태복음 22:29)

진실로 우리는 경전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지혜를 신뢰함으로써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경전 공부가 우리 일상 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게 하는 일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니파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서 32:3)라고 현명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공부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화시켜 주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경전에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경전과 복음을 설명하신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중에서 최고의 예지이신 그분은 틀림없이 자신의 지식과 이해로써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분이 얼마만큼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경험과 이해의 수준에 따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말씀하시기보다는 평범한 장소나 양과 목자, 어부의 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물이나 겨자씨, 소금, 등불, 주인이나 종 등 일상적인 것을 사용하여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마태복음 4:19)라고 처음 그를 청했을 때 그는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교사이신 주 예수님의 거룩한 지도 아래 베드로는 비천한 추종자에서 사랑하는 제자로, 나약한 신앙인에서 강력한 관리 사도로 발전했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의 다음 말씀에서 그 통찰력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베드로 전서 2:9~10)

베드로가 그물을 수선하거나 고기를 잡을 때 그와 같은 지식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한 3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청중들에게 경전의 의미를 밝히며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그분의 영감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조금씩 지식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지도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지식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경전 공부와 성령의 증거를 통해 발견한 보물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미덕의 완전한 모범

그리스도의 지도력의 세 번째 속성은 순종과 합당성 및 의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열망해 온 모든 미덕과 거룩한 속성에 있어 인간으로서 완전한 모범이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놀라운 특성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특성은 충성심, 특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선 순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요한복음 5: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의 아

버지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그분의 위대한 모범을 배워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대관장단 제1보좌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언젠가 우리에게 구세주와 성령의 영감을 통해 주어지는 그분의 지시에 충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몬슨 부대관장의 사무실 벽에는 구세주의 큰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몬슨 부대관장은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마다 그 초상화를 보고 “구세주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라고 자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지도력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용기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다정 다감하시고 자비로우셨지만 필요한 말이나 행동은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을 “강도의 굴혈”(마태복음 21:13)로 만드는 상인들과 담대히 맞섰습니다. 그분은 불의와 위선을 지적할 필요를 느꼈을 때 주저 없이 응징하셨습니다.

군대와 하속들이 그분을 죽이기 위해 체포하려 왔을 때 그들 앞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신 주님은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 대답했습니다.

“내로라”하고 대답하시는 그분의 용기와 힘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으며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제자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요한복음 18:1~8)

이것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기꺼이 따라야 할 용기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구세주의 또 다른 특성은 위임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무슨 일이든 잘하기 때문에 혼자 다하려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신뢰하셨으므로 그의 사업, 심지어 그의 영광까지도 그들과 나누어 그들이 발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이부자리를 깔아 주는 것보다 이부자리를 까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 특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영영 이부자리를 까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생애는 의미와 목적이 있으며, 이를 수

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 지구에 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전세에서의 천국 전쟁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교회에서의 지도자들의 성역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해 오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발전은 임무가 명확히 이해되고 책임 분야가 분명히 규정될 때 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자유 의사로 그 직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 책임감은 참여한 모든 자에게 중요한 발전 과정의 한 부분이 됩니다. 개인 접근 과정에서 위임이 주어진다면 이때는 마음을 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면서 협조와 도움을 주고받거나 칭찬하여 주며 때로는 사랑의 영으로 꾸짖을 수 있는 때입니다.

구세주께서는 형제애를 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일을 시키시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인도하시는 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친밀한 우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으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한복음 15:14~15)

그분은 현대의 종들에게도 친구라 불렀습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친구여,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부르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줄 필요가 있나니, 곧 내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러 돌아다니며 나의 친구와 함께 하던 그 시절의 나의 친구와 같이 될지이다.”(교리와 성약 84:77)

구세주께서는 약한 자나 강한 자, 용감한 자나 두려워하는 자, 죄인이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셨으며 이 사랑을 그들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그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끔 훈계도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주님께서 자기

를 사랑하심을 알았으므로 훈계를 받아들였으며 그로 인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는 자들이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묶여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 와드나 지부의 회원들도 “사랑 안에서 연합”(골로새서 2:2)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은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영광”(교리와 성약 19:19)인 일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한 어떤 영예도 요구하지 않으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6:38~39)

구세주께서는 주로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지만 한 개인에 대한 성역의 중요성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수없는 세계”(모세서 1:33)를 창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 “침을 뱉어 진흙을”(요한복음 9:6~7) 이셨습니다.

저는 군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다가온 여인의 이야기에 감동됩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아 온 그 여인은 병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 왔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바로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했고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났다 해도 그것은 위대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밀며 에워싸고 있었는데도 그분은 누군가에게로 능력이 빠져 나갈까 아시고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마가복음 5:30)

그분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아마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분 주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사람을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앞으로 나와 자초 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 (34절; 25~33절 참조)

이 이야기에 제가 특히 감명 받는 부분은 주님께서 주위에 둘러선 군중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개인의 생을 축복할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신을 얼마나 자주 살펴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 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 충분히 돌보고 있습니까?

구세주께서는 비이기적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행치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심이요, 세상 만인을 주 앞에 인도하시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이라. 그러므로 주는 그의 구원을 받지 말라고는 아무에게도 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니파이서 26:24)

오늘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의 요구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스스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임무를 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그런 지질에 있어 훌륭한 모범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 그의 생명까지도 모든 인류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림: 테드 해닝거,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우리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겪으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통을 요구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의 희생은 요구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함에 있어 희생이란 없습니다. 왕국의 사업에 우리가 가진 약간의 시간과 재능을 바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희생이란 개념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주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매번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세주의 지도력은 사랑과 봉사의 터전 위에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신 모든 것은 이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마태복음 20:28)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23: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태복음 23:12)

저는 오래 전에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제가 연차 대회 모임에 참석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제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와와 친분 때문에 알게 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셨습니다.

“조셉, 나하고 같이 가. 좋은 자리를 찾도록 도와줄게.” 맥케이 대관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회장으로 가는 잠시 동안 맥케이 대관장은 제게 온 관심을 쏟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주님과 교회 회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경건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확고하게 자신의 간증을 전해 주셨습니다.

“조셉, 주님의 교회의 대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는 걸 알기 바라네.” 그 순간 영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 진실을 얘기하고 계심을 제 마음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 간증은 제가 평생 동안 우리의 대관장이 지니신 직무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별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맥케이 대관장이 제 이름을 불렀고 그 분이 저와 함께 태버내클로 가서 자리를 잡아 주고 간증을 전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사랑을 느꼈고 함께 했던 단 몇 분 동안 봉사에 관한 그의 겸손한 행동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와 같은 경험은 다시 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그와 같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구세주께서 보여 주신 효과적인 지도력의 미덕에 충실하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도력을 행사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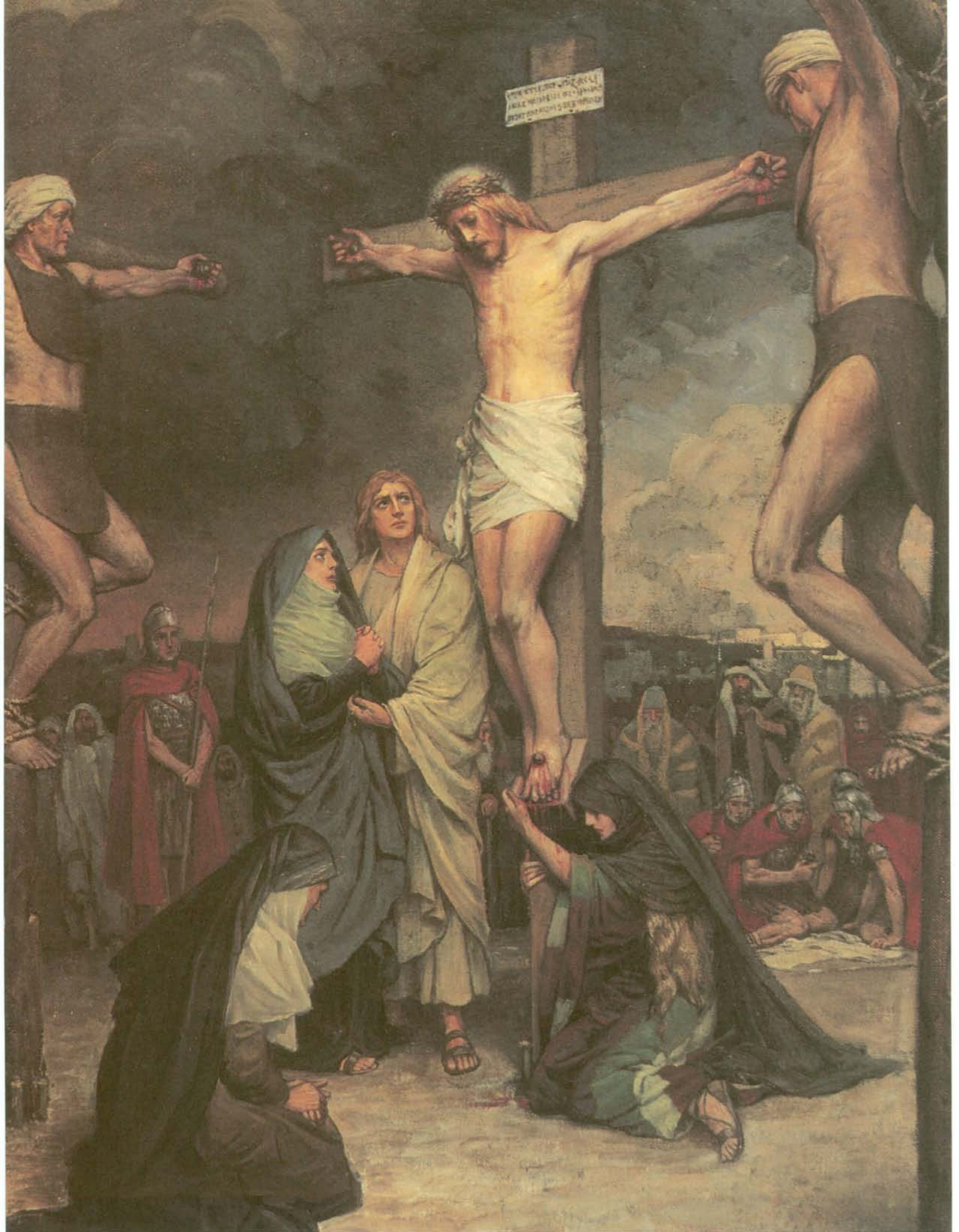
김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길을 보게 되지 못한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성도의 빛, 1983년 8월호, 11쪽)

자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하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성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분께 충실하고 용기 있으나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위임을 통하여 서로 가르치고 형제애를 돈독히 하며 주님의 왕국을 위해 기꺼이 희생합시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한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봉사합시다.

아름답고 거룩한 찬송가인 “거룩함도 더욱”의 3절 가사는 구세주를 따르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높은 이상을 말해 줍니다.

순결함도 더욱, 이길 힘도 더욱,
세상 고통 잊고, 천국 그리움.
왕국에 적합한 성품도 더욱,
주님 지닌 축복 더 주옵소서.
(찬송가, 60장)

구세주의 완전한 생애와 거룩한 지도력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교회에서의 부름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임무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전을 통해서 오는 평화

파멜라 아키니 오바로

부끄러움과 소심함은 언제나 저의 생활을 어렵게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질문에 말로 대답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직업을 얻기 위해 하는 면접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었고 해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에게는 몹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입하고 난 후 기도를 부탁 받을까봐 겁이 나서 가끔씩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증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지 않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복음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 너무나 겁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다음 주에 영적 말씀을 하도록 지명 받았습니다. 그 일요일, 교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낮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제가 잠을 자러 가기 전에 여섯 살 난 아들 데이비드는 값진 진주를 들고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모세서 6장을 펼치고는 저에게 읽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아 피곤하다고 말을 하고는 재빨리 책을 덮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엄마, 제발, 여기 좀 읽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모세서 6장을 펴고 작은 손가락으로 31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이 이 말씀을 듣자 주 앞에서 땅에 엎드리어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주의 눈에 들음이 어쩐 연고이니까? 저는 나이 어린 자요, 말을 더디 한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오니, 이리하고서도 내가

"입을 열라.
그러하면 채워져
내가 말하게
해주리라."



당신의 종이오니까?"

"이에 주께서 에녹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나아가 행하라. 그 어느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입을 열라. 그러하면 채워져 내가 말하게 해주리라. 이는 모든 육체가 네 수중에 있어 내가 좋을 대로 행할 것임이니라."(모세서 6:31~32)

데이비드가 이 구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기 전부터 세 안에 새로운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하고 간단하게, 우리 지방의 토속어인 스와힐리어로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에녹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에녹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이더서 12:27 참조) 데이비드는 나를 보며 웃었고 계속 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이 주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상으로 보내신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일요일 저는 신경이 쓰였지만 영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후에 상호부조회 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자매님들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저는 공과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케냐 나이보리 지방부 파클랜드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경전이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제 인생에 빛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경전을 통해 기쁨과 평화를 찾는 일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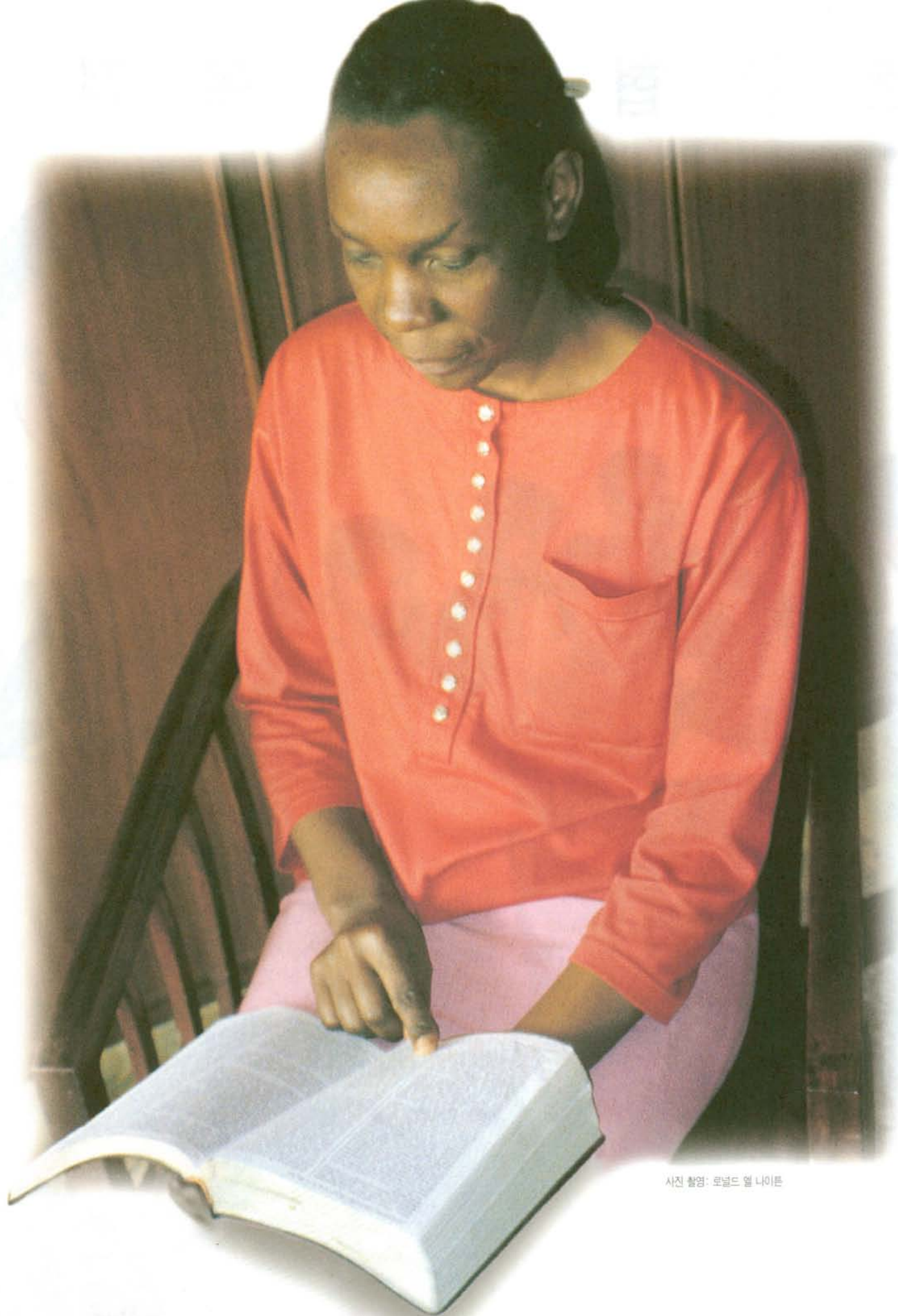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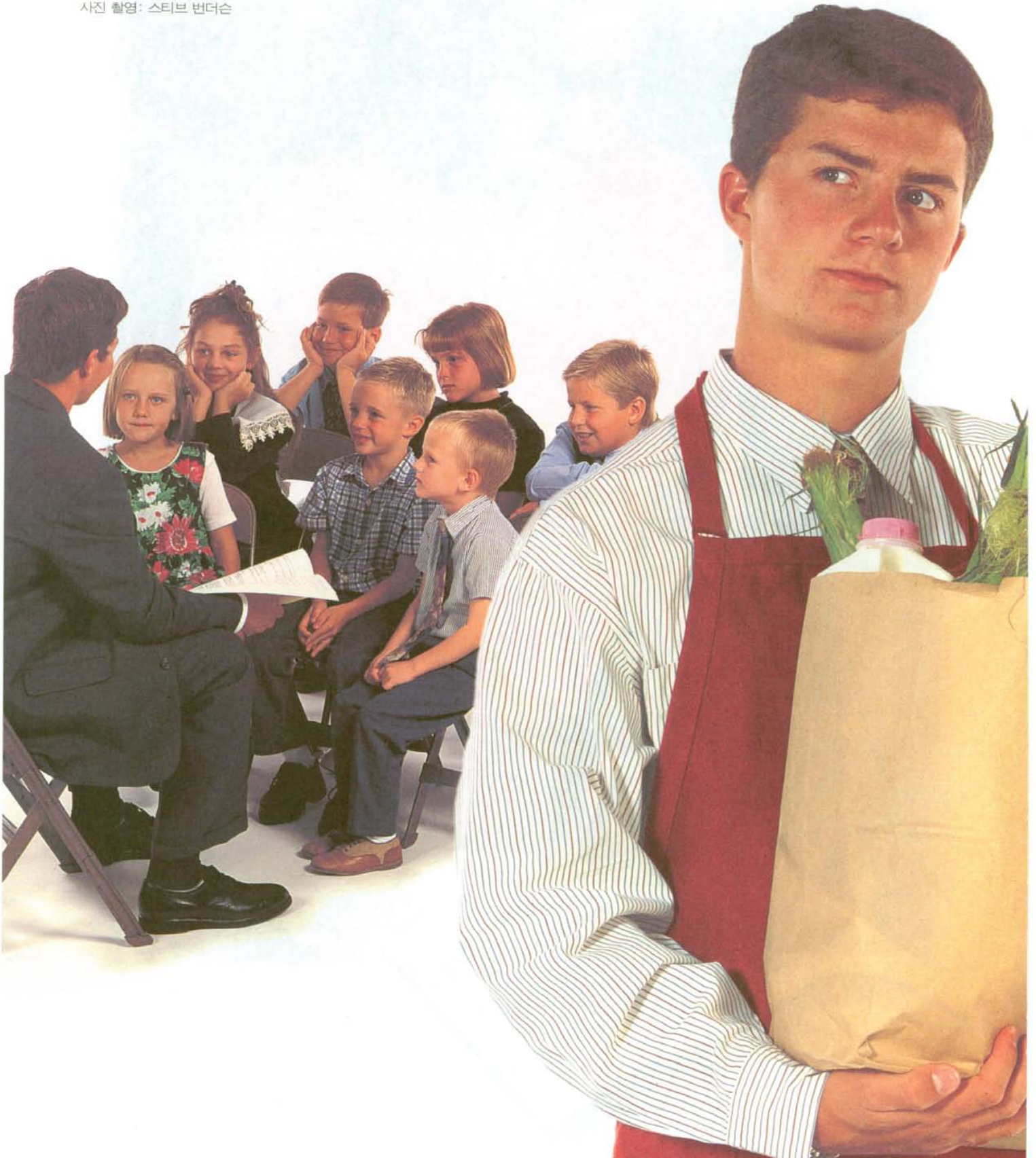


사진 촬영: 로널드 볼 나이튼

초 등 협 회 의 목 적

브라이언 루이스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제가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해에 감독님은 감독실로 저를 부르셔서 일곱 살 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아들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에 흥분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좋은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 슈퍼마켓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슈퍼마켓 지배인과 부지배인은 제가 일요일에도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지배인은 “나는 몰몬이나 다른 누구에게 맞춰서 시간 계획을 짤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일하기 위해선 저는 부름을 그만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배인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상황을 감독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만일 선교 사업을 나가려면 선교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에 참석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기도 했습니다. 감독님과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저는 일자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후 얼마 안 되어 일요일에 쉴 수 있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저는 제 부름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고 그 후 몇 달 동안 초등학교 아이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 토론 책자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론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몰몬경, 첫번째 시현, 신앙, 회개,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 즉 제가 초등학교 반에서 가르친 것과 같은 원리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선교 사업에 대해 기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얼마 후에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쉽게 다른 사람이 그 초등학교 반을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왜 일자리를 그만두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둠으로써 저는 선교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고, 결국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주님께서는 165년 전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세상의 더러운데 물들지”(교리와 성약 59:9)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 회원들에게 권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하지 말아야 하고 남보다 더 의롭게 보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마태복음 6:1~6, 16~18 참조) 우리는 단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59편 9절에서 안식일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하는 날이라고 가르치십니다:

- 휴식.
- 예배.
- 서약을 의롭게 바침.
- 우리의 죄를 고백함.
- 성찬을 취함.
- 정성을 다하여 식사를 준비 함.
-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함.

덧붙여서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은 안식일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 좋은 책을 읽음.
- 명상.
- 경전을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함.
- 병자를 방문함.
- 복음을 가르침.
- 선행을 함.
- 가족들과 조용히 방문함.
-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

- 일지를 씀.
- 회원 및 비회원 들과의 우정을 증진함.
- 영성을 높이는 음악을 들음.
- 휴식을 취함.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은 안식일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 정원 손질과 가사.
- 오락 시설이 있는 곳이나 휴양지로의 여행.
- 시간 낭비.
- 토요일에 못 잔 잠을 잠.
- 차에 기름을 넣음.
- 기도나 명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쁜 것.
- 운동이나 사냥을 함.
- 영적으로 우리를 고양해 주지 않는 것들을 읽는 것.
- 쇼핑. □

1995년 8월 6일 얼 시 텅기 장로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함.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
사진 합성:
찰스 베어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태복음 20:28)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11)

.....
“그분의 모범적인 생애를
통해 인도됨” 34쪽 참조

